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각 집필자 소속기관의 공식 입장 과는 무관함.



2024-1 (No. 73), 2024. 1

2023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사 회: 이 관 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발 표: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김 동 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양 문 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 우 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토 론: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 보 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최 은 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 형 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 시: 2024년 1월 10일(수), 14:00~17:00

장 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1층)/온라인



I F E S

경남대학교 극통문제연구소

목차

정치

【발표】2023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정치·외교·대남 분야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3 【토론】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33

군사

【발표】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 51 【토론】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67

경제

【발표】 2023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4년 전망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 81【토론】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101

사회

【발표】2023 북한사회변화와 2024 변화전망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 113

【토론】이형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3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 141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 147 회원가입 안내 / 165



정치

발표

2023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정치·외교·대남 분야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토론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치분야_발표

2023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정치·외교·대남 분야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I. 문제의 제기

- 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의 논의 내 용과 결론을 31일자 로동신문 등을 통해 보도
 - 북한은 200명 이상의 핵심 엘리트들이 참가하는 당중앙위원 회 전원회의에서 당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고, 중요한 인사 와 정책을 결정
 - 특히 연말에 개최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한 해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새해의 정책목표를 제시
-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의 결정 사항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노선'으로 제 시한 것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한 것
 - 김정은은 남북관계에 대해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 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

-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에 남북관계를 보던 시각에서 탈피한 것 으로 그 의미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논의 사항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북 한 국내정치 변동과 북한의 대중, 대러, 대미 정책 등을 분석하 고 전망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본고는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논의 사항을 넘어서서 2023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관련 정치·외교·대남 분야에서의 핵심 이슈와 사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Ⅱ. 김주애에 대한 호칭과 의전 그리고 후계문제와의 관련성

- 북한 국내정치 분야에서 2023년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김정은의 장녀 김주애가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수시로 동행하 고, 김주애에 대한 의전이 '2인자' 수준으로까지 격상된 것
 - 북한은 2022년 11월 27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김주애에 대해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로동신문 사이트에서 '존귀하신'이라는 수식어는 '백두산 3대 장군'인 김일성·김정일·김정숙과 '현재 수령'인 김정은에게만 사용되어 왔음. 그러므로 이처럼 절대권력자를 의미하는 '수령' 또는 수령급 인물에게 주로 사용되는 수식어를 김주애에게 사용한

- 것은 곧 그가 북한의 '후대 수령'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음.
- 북한은 2023년 2월 8일자 로동신문에서부터 김주애에게 '존 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사용. 10대의 어린 김주애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김주애에 대한 우상 화 시작을 의미
- 2월 7일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연회에서는 김정은이 김주 애를 테이블의 정중앙에 앉히고 자신과 부인 리설주는 그 양 옆에 앉아 군 고위간부들을 병풍처럼 뒤에 세우고 사진을 찍었음. 이는 김정은이 북한군 간부들에게 앞으로 김주애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니 김주애를 잘 모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 2월 9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열병식에서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 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잡았습니다."라고 보도 하면서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모시고'라는 표현을 김주애에게 사용.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서열 5~6 위 안에 들어가는 최고위급 간부들이므로 이들이 김주애를 모셨다는 것은 김주애가 그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다시 말해 김정은 다음가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
- 조선중앙TV는 2월 8일의 열병식에서 기마부대가 앞장선 열병 행렬 순서를 소개하면서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와 바로 뒤의 김주애 백마를 보여주고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 시는 준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 다."라고 보도. 이는 김주애가 미래에 김정은의 후계자가 되어 북한을 이끌어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음.

- 2월 8일 열병식 참가자들은 "김정은 결사용위! 백두혈통 결사보위!" 구호를 계속 외쳤고, 북한 TV는 수시로 김주애를 비췄음. 따라서 열병식 참가자들은 실제로 "김정은 결사용위! 김주애 결사보위!" 구호를 외친 것이나 다름없음.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최고지도자와 후계자 외의 인물에 대해 '결사보위' 구호를 외친 적이 없음.
- 2월 14일 북한 조선우표사는 같은 달 17일 발행 예정인 새 우표의 도안 8종을 공개했는데, 8종 가운데 5종의 우표에 김 주애가 김정은과 미사일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나란히 걷거나 팔짱을 끼고 포즈를 취한 모습, 인민군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음. 이는 2010년 9월 김정일이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을 대외적으로 처음공개한 후 북한 매체들이 김정일과 김정은 2인에게 포커스를 맞춘 사진을 계속 게재한 것을 연상시킴.
- 8월 29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김주애가 군 원수인 박정천과 강순남 국방상을 뒤에세운 채 걷는 장면을 보여줌. 또 군인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주석단에 앉아 김 총비서의 연설문으로 추정되는 종이를넘기고, 작전지휘소 방문 때는 꼿꼿한 자세로 해군 사령관의작전계획을 듣는 김주애의 모습을 보여줌. 의전을 담당하는현송월이 김정은보다 김주애를 먼저 챙기는 모습도 포착됨.
- 12월 1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은의 11월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방문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주애가 김 정은보다 앞에 서서 주인공처럼 부각된 사진을 게재
-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김주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진행됨.

- 필자를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김주애에 대한 북한의 호칭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과 김주애에 대한 의전, 북한이 공개하는 사진에서의 김주애의 위치, 김주애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이 아니라) '내정'되어 후계수업을 받고 있다고 평가
- 반면에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핵과 ICBM 개발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김주애를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으며, 김주애 공개가 후계자 내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
- 그러나 2023년에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자주 동행하고, 각종 행사에서 2인자에 해당하는 의전을 받으며, 지난해 9월 열병식에서 열병식 때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에 앉은 김주애에게 박정천 원수가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모습등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김주애를 보는 전문가들과 정부의시각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
 - 그래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데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에는 "김주애의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발표
-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 가능성에 대한 국정원의 평가도 크게 달 라지고 있음
 -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백두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

- 그러나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올해 1월 3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 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힘.
- 조태용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또한 "김정은 자녀와 관련 해 국정원은 2013년생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 국정원이 이번에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 자녀'가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는 과거의 오판을 간 접적으로 인정한 것도 주목할 부분
- 북한은 올해 1월 1일자 로동신문 1면 상단에 김정은과 김주애 가 중심에 들어간 사진을 실어 작년보다 올해 김주애의 공개활 동이 더욱 늘어나고 위상이 더욱 격상될 것임을 시사
 - 1월 5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은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포 -18형 발사대 차량 공장 시찰을 보도하면서 "존경하는 자제 분께서 동행하시였다. 조춘룡동지, 조용원동지, 리일환동지, 김여정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미싸일총국 지 도간부들이 동행하였다."라고 소개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김정은에 대해 '현지지도하시였다'라고 존댓말을 쓴 것처럼, 김주애에 대해서도 '동행하시였다'라고 존댓말을 사용하고, 조용원과 김여정 등 다른 간부들에 대해서는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김주애와다른 간부들을 명확하게 차별화하고 있는 점

- 그리고 로동신문은 김주애의 동행 사실을 조용원 당중앙위원 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의 동행 앞에 별도의 문장으로 소개함으로써 최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김주애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냄
- 북한은 올해 들어 이처럼 핵심 간부들에 대한 김주애의 우월 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지난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섯째 의정으로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음.
 -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1비서'직을 신설하고도 비공개로 했던 것처럼,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주애를 '제1비서'직에 선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해 들어 김주애에 대한 호명 방법과 순서에서 과거보다 확실하게 '2인자' 위상을 과시
- 2022년 11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김주애의 김정은 동행 관련 보도 건수는 23건이고, 그중 21건이 군사와 관련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 2023년 2월과 4월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 관람 도 군사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군사와 관련된 보도에서 제외해도 군사와 관련된 것이 19건이 됨.
 - 이는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에서 김주애에게 이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2023년 11월 27일 보도)으로 키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

- 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김주애의 공개활동은 2023년 2월 평양시 서포지구 새거리 착공식에 참석해 김정은과 함께 착공의 첫삽을 뜬 것과 2024년 12월 31일 신년경축대공연에 김정은과 함께 참석한 것
- 필자가 2021년 미국에서 만난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 부부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의 8세 생일날(1992년, 김정일이 만 50세 때) 그에 대한 찬양가요인 '발걸음'이 김정일과 그의 핵심 측근들 그리고 김정은 앞에서 공연되었고 김정일은 이때부터 측근들에게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다"라고 이야기했음.
 -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김정은 이모부의 지적에 대해 김정일은 당시 "나를 닮아서"라고 대답
 - 그런데 김정일은 김정은을 1992년에 후계자로 내정하고도 그것을 소수의 측근들에게만 알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오랫동안 그의 이복형 김정남이나 친형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외부세계의 억측으로 마음고생을 했을 것
 - 그리고 김정일이 2008년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되면서 서둘러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면서 1984년생인 김정은은 24세의 매우 젊은 나이에 2인자 자리에 올라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할 때까지 3년간 권력승계 작업을 초고속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은까지 북한에서 권력이 3대에 걸쳐 세습되었으므로 또 한차례 세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 간부들은 그것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 그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하고 조

- 기에 후계수업을 시작한 것은 그의 과거 경험과 건강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5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김정은의 몸무게는 140kg 중반대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으면서 술과 담배에 더 기대고 있다고 보고
- 김정은의 이같은 초고도 비만 상태를 고려할 때 그가 당뇨와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가 갑자기 쓰러진다고 해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것
- 만약 김정은이 그의 부친 김정일처럼 젊은 나이에 뇌혈관계 이상 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되면서 갑자기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한다 면 김주애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외부세계에서는 김주애가 과연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것
 -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확산 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김정일이 김정은의 8세 생일날 그를 후계자로 내정한 것처럼, 김정은도 김주애를 조기에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했다 면 일찍부터 후계수업을 시작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
 - 그런데 김주애가 북한의 4대 '수령'이 될 수 있을지는 김정은 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건강을 유지하며 김주애를 지원할 수 있을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과는 분명하 게 구별되는 MZ세대 지도자
 -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나라에서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단언

- 그런데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북한에서 '백두혈통' 김여정의 승 진 속도는 그의 고모 김경희와 항일 빨치산 2세의 대표주자인 최룡해 그리고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의 과거 승진 속도보다 훨 씬 빨랐음.
 - 김여정은 2014년 26세의 매우 젊은 나이에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직에 올랐는데, 이는 김경희 가 30세의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을 맡은 것보다도 빠른 것
 - 김여정은 2016년 28세의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되어 북한을 움직이는 약 100명 내외의 핵심 엘리트 그 룹에 들어가게 되었음.
 - 이는 최룡해가 만 36세에 그리고 김경희가 만 42세의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위원'직에 선출된 것보다 훨씬 빠른 것.
 - 김여정은 다시 2017년 29세의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되어 북한을 움직이는 최고위 파워 엘리트 30인 내외의 그룹에도 들어감.
 - 이는 최룡해가 60세의 나이에, 장성택이 64세에 정치국 후보 위원에 선출된 것과 비교해도 30살 이상 빠른 것
 - 이처럼 김정은 시대에 북한 지도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인 김여정이 과거의 어느 남성 엘리트보다, 최룡해나 장성택보다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이변을 보였으므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인사정책을 보는 시각으로 김정은의 인사정책과 용인술을 보는 것은 부적절

〈표〉 김주애 보도 일지

연	보도 날짜	
번	(보도기관)	보도 내용과 주요 특징(※)
1	2022.11.19. (로동신문)	김정은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김주애와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ICBM 근처에까지 가서 관찰하고 발사 장면을 참관하는 사진을 공개 ※ 김정은과 리설주의 얼굴을 합성해놓은 것처럼 둘의 얼굴을 빼닮은 김주애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 ※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호칭
2	2022.11.27. (로동신문)	김정은과 김주애가 화성포-17형 ICBM 시험발사 관계자들과 같이 찍은 기념사진 공개 ※ 김정은과 김주애가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공개하고 김주애에 대해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사용 ※ 김주애에 대해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표현도 사용
3	2023.01.01. (조선중앙 TV)	김정은과 김주애의 핵무기 탑재 가능 미사일 시찰 사진을 공개
4	2023.02.08. (로동신문)	김정은이 군 장령들의 박수를 받으며 김주애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인민군 창건 75주년 연회장에 들어서는 사진을 로동신문 1면 하단에 게재하고, 로동신문 2면 상단에는 김 정은과 리설주 사이의 정중앙에 김주애를 앉히고 군 고위 간부들을 병풍처럼 뒤에 세워 찍은 사진을 공개 ※ 김주애에 대해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호칭
5	2023.02.09. (로동신문) (조선중앙 TV)	김주애의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참가 사진과 동영상 공개 ※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호칭 ※ 조선중앙TV는 8일 열병식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잡았습니다."(강조는 필자)라고 보도하면서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모시고'라는 표현을 김주애에게 사용

		 조선중앙TV는 8일의 열병식에서 기마부대가 앞장선 열병 행렬 순서를 소개하면서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와 바로 뒤의 김주애 백마를 보여주고 "사랑하는 자제분께 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 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라고 보도 8일 열병식 참가자들은 "김정은 결사용위! 백두혈통 결 사보위!" 구호를 계속 외쳤고, 조선중앙TV는 수시로 김 주애를 비춤.
*	2023.02.14.	북한 우표 8종 중 5종에 김정은과 김주애의 사진이 들어 간 우표 도안들 공개 (조선우표사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만 공개)
6	2023.02.18. (로동신문)	김정은과 김주애의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 관람 사진 공개 ※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과 '모시고'라는 표현 호칭
7	2023.02.26. (로동신문)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평양시 서포지구 새거리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의 첫 삽을 뜨는 사진 공개 ※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표현
8	2023.03.10. (로동신문)	김정은의 9일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 현지지도 및 화력습격 훈련 참관 시찰에 동행한 김주애 사진 공개 ※ 로동신문 1면과 2면 상단에 사진 소개
9	2023.03.17. (로동신문)	김정은과 화성포-17형 ICBM 발사 훈련 지도에 동행한 김주애 사진 공개
10	2023.03.20. (로동신문)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18~19일)을 참관하는 김정은과 김주애 사진 공개 ※ 강순남 국방상 및 전술핵운용부대 지휘 연합부대장, 동서부전선 각 미사일군부대장, 구분대 지휘관들 참관
11	2023.04.14. (로동신문)	김정은과 김주애의 화성포-18형 신형 ICBM 시험발사 참관 사진 공개 ※ 리설주, 김여정, 조용원 등 수행
12	2023.04.17. (로동신문)	김정은과 김주애가 '태양절' 기념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를 관람한 사진 공개
13	2023.04.19.	김정은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에 동행한 김주애 사진 공개
14	2023.05.17. (로동신문)	김정은의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 현지지도에 동행 한 김주애 사진 공개

15	2023.08.29. (로동신문) (조선중앙 TV)	북한 해군절(28일)을 맞아 27일 김정은의 해군사령부 방문에 동행해 해군 간부들과 기념사진 촬영하고 경축연회참석 ※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호칭 ※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의 해군사령부 방문 시 김주애가 군원수인 박정천과 강순남 국방상을 뒤에 세운 채 걷는 장면을 보여줌. 또 군인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주석단에 앉아 김 총비서의 연설문으로 추정되는 종이를넘기고, 작전지휘소 방문 때는 꼿꼿한 자세로 해군 사령관의 작전계획을 듣는 김주애의 모습을 보여줌. 의전을 담당하는 현송월이 김정은보다 김주애를 먼저 챙기는 모습도 포착됨.
16	2023.09.09. (로동신문)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민방위무력 열병식을 '주석단 특별석'에서 김정은 바로 오른편에 앉아 참관 ※ 김주애에 대해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호칭 ※ 열병식 주석단 특별석에서 박정천 원수 겸 군정지도부장 이 주애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보도
17	2023.11.24. (로동신문)	정찰위성발사 성공 경축 연회에 김정은과 동행한 김주애 사진 공개 ※ 리설주, 김여정 등 참석
18	2023.11.24. (로동신문)	김정은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동행해 정찰위성발사 성공 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공개
19	2023.12.01. (로동신문)	항공절을 맞이해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련대 축하 방문한 김정은과 동행한 김주애 사진 공개 ※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에 서서 주인공처럼 부각된 사진 게재
20	2023.12.19. (로동신문)	김정은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에 동행한 김주애 사진 공개
21	2023.12.21. (로동신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 참가한 미사일총국 제2붉은 기중대 군인들과 함께 찍은 김정은과 김주애의 사진 공개
22	2024.01.01. (로동신문)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에서 김정은 바로 오른편에 자리한 김주애 사진 공개 ※ 김주애에 대해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호칭

2024.01.05. (로동신문)	김정은의 중요 군용대차 생산공장(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포-18형' 발사대 차량 공장) 현지지도에 동행한 김주 애 사진을 로동신문 1면에 공개 ※ 김주애에 대해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호칭 ※ 김정은에 대해 '현지지도하시였다'라고 존댓말을 쓴 것처럼, 김주애에 대해서도 '동행하시였다'라고 존댓말을 사용 ※ 김주애의 동행 사실을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의 동행 앞에 별도의 문장으로 소개함으로써 최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김주애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냄.
	늘에 대한 김수애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냄. ※ 북한이 로동신문 1면에 게재한 11장의 사진 중 10장에 김주애가 들어감.

Ⅲ. 2023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

1. 북러 관계

-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행사에 김정은 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국방장관)을 초청해 정상급 에 준하는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대우
 - 과거에 소련의 군사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때처럼 환대받은 적은 없었음.
- 이후 김정은은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동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음.
 - 9월 13일(현지시간) 오후 1시쯤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 이후첫 해외 방문"이라고 말했음.

-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시 하는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라고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
- 푸틴 대통령도 이날 만남 장소와 목적이 우주 협력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음.
- 그는 13일 김 위원장과 재회해 나는 짧은 인사에서부터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우주기지에서 회담하는 이유"라고 밝혔음.
- 아울러 김 위원장과 무기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답했음.1)
- 이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안내로 우주 발사장을 둘러 본 후 정상회담에 돌입
- 김정은은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모든 결정을 지지한다"며 "러시 아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강조
 - 이에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오늘 회담에서는 경제협 력과 한반도 정세, 인도적 사안에 대해 회담하기를 바란다"며 "초대에 응해줘 감사하다"고 화답2)

¹⁾ 김희원, "재래식 무기 주고, 첨단 우주기술 받고···북·러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목적' [뉴스+]," 『세계일보』, 2023.9.13.

²⁾ 김현아, "북러 정상회담 우주기지에서 시작···김정은, 푸틴에 "대러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문화일보』, 2023.9.13.

- 김정은과 푸틴 간의 정상회담은 양측의 고위급 수행원들이 참 가하는 전원회담에 이어 단독회담의 순서로 진행
 -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만 배석했던 2019년 북러정상회담 때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전원회담에는 북한측 에서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원수, 강순남 국방상, 당중앙위 원회 비서들인 오수용과 박태성,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 외교 와 군사 분야의 고위급 간부들이 함께 배석
 - 전원회담에서 김정은은 "조로[북러]관계를 최중대시하고 뿌리 깊은 친선의 전통을 변함없이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는 의의깊 은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3)
 - 북러관계를 '최중대시'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은 북러관계를 북 중관계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 서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음.
- 전원회담에 이어 진행된 김정은과 푸틴 간의 단독회담에서 양 정상은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 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 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 히 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 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 게 토의하시였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시였다."라고

^{3) 『}로동신문』, 2023.9.14.

북한 로동신문이 보도

- 단독회담이 끝난 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연 회를 개최
- 김 위원장은 연회가 끝난 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쾌히'수락⁴⁾
- 과거에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는 우크라 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결 국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이와 관련 2023년 9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는 지난해 확보한 (우크라이나 내) 영토를 지키기 위해 혹독한 소모전을 벌이면서 올해 7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러시아는 무기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보유량이 적더라도 전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도 환영한다."고 분석
-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
 - 북한은 천리마-1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 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발표
 - 북한의 2024년에도 3개의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
 - 북한의 이같은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중 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4) 『}로동신문』, 2023.9.14.

- 2023년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냉전 시대의 동맹을 넘어서는 전면적·전략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으로 분석됨.
 - 냉전 시대에 소련은 북한에 재래식 무기 분야에선 지원했지 만, 전략무기 분야에선 협력하지 않았음.
 - 그러나 김정은의 방러를 계기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찰위성과 공군 및 해군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에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푸틴의 방북이 성사되면 이번에는 북한이 2025년까지 개발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북러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2. 북중 관계

-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행사에 중국이 과거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북한이 중국대 표단보다는 러시아대표단을 더 챙기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북한과 중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 이 및 갈등을 보여주는 것
 - 북한과 중국이 모두 미국과 대립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의 대화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조차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외정책 공조와 관련 북중 간에 미 묘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양국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김정은의 방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은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2024년도 정책 목표에 '대외경제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명시
- 그리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1월 1일 각기 상대방에게 축전을 보내 2024년을 '조중친선의 해'로 선포했으므로, 올해 북중 간에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중단되었 던 중국인의 북한 관광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이 2023년에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정상회담을 개최했으므로, 2024년에는 베이징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됨.

3. 북미 관계

- 김정은은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도 높게 비난
 - 그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충실한 졸개, 《충견》역할을 놀고 있는 남조선놈들과 일본놈들을 보다 집요하게 끌어들여 양자, 3자협력확대를 꾀하며 반 공화국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작년에 더욱 확대되었다고 주장
- 김정은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신설, 한미일 3자 훈련의 연례화, 미국 핵잠의 한국 기항, 2024년 8 월의 한미연합훈련계획 등을 비난하면서 "현실은 미국이 고질 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들이 단순히 수사적

- 위협이나 과시성 목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 적 행동으로 이어져 쌍방무력 간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 행단계로 명백히 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난
-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북한]의 《정권종말》까지 공개 적으로 운운하면서 남조선놈들과 반공화국 핵대결강령인 이 른바 《워싱톤선언》을 조작하고 핵무기사용의 공동계획 및 실 행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바》[핵협의그룹]를 신설, 가동 시켰으며 이를 도용하여 공공연히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에 대한 핵전쟁 흉계를 극구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비난
- 그리고 "불과 며칠전에도 미국놈들은 괴뢰들을 워싱톤에 끌어들여 제2차 《핵협의그루빠》모의판을 벌려놓고 다음해 [2024년] 중반기까지 《핵전략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하며 8월에 들어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기간에 핵작전연습을 시행한다는 것을 세계면전에 공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또다시 핵동력잠수함[핵추진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출현시키는 것으로써 이해가 저물어가는 마감까지 도발을 걸어왔다"고 주장
- 김정은의 이같은 주장은 그들이 2022년 4월부터 비핵국가인 남한을 대상으로 전술핵무기 전방 배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 과 남한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공항, 항만 등을 대상으로 모의 핵공격 연습을 진행하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지시하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 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위기를 지속적으로 고 조시킨 책임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한미에 뒤집어씌우는 것 -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종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한

- 의 핵도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 아님.
- 김정은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대해 "반공화국 핵대결 강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응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대북 선제 핵사용을 논의하거나 계획 하기 위한 것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한미가 북한에 대한 '핵전쟁 흉 계'를 극구 추진헤나가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함.
- 김정은이 이처럼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 간에 무력충돌 발생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남한 영토를 평정하 기 위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정책을 정당화하며, 북한의 반미 대결정책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
 - 따라서 북한은 올해 8월 한미가 대규모로 합동훈련을 진행할 때 그것을 한미의 대북 '핵공격 연습'으로 왜곡 선전하면서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보다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 인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하겠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그러므로 북한은 그들의 일정표대로 올해 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의 양산 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Ⅳ. 북한의 새로운 대남 노선과 남북관계의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 평가

-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의 결정 사항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노선'으로 제 시한 것과 김정은이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 시한 것
 - 김정은은 12월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對敵)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 을 할 데 대하여" 입장을 천명
- 김정은은 지난 12월 30일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 적인 방향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을 제시
 - 김정은은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여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 데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강조는 필자)고 지적
 - 그리고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라고 주장
 - 이어서 "우리[북한]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 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평가

- 이같은 평가에 기초해 김정은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 그리고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
 - 또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조속들을 화해와 통 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주장
 - 김정은이 이처럼 남한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이 모두 북한 흡수통일에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한의 대남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낮음.
-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 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담화 등을 통해 대남 적대정책으로의 전 환 필요성을 정당화
 -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노동당의 중장기적인 정책 기조인 '노선'의 형태로 제시
 - 김정은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남한을 '식민지 졸개'로 비하조롱하며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

- 그리고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고착되었다"고 평가
- 김정은의 이 같은 남북관계 규정은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원칙을 부정하는 것
 - 그리고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도 부정하는 것
 - 또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도 사실상 폐기하는 것
- 김정은은 12월 30일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 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에 의해 올해 1월 1일 최선희 외무상은 리선권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 남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
- 그에 따라 통일전선부 기구를 축소하고, 통일부를 상대로 남북 협상을 진행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남한 민간단체 와의 교류를 담당해온 민족화해협의회 등을 폐지하며, 대남 기 구와 인원들을 외무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

으로 예상됨.

-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조평통의 공식활동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조평통이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와 민족화해협의회가 운영하는 '려명' 사이트는 지난 1월 3일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음.
- 통일전선부는 대남 사업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중동포 와 재일동포 등 해외동포들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전 선부가 해체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부분
- 대남 접촉과 관련한 업무는 북한이 외무성으로 이관할 수 있지만, 대남 공작사업은 고도의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외무성으로 이관하기는 어려울 것
- 작년 7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외무성이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 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보는 입장이 작년 12월 당중앙위원 회 전원회의 이전부터 이미 대남정책에 적용되고 있었음을 의미
- 김정은이 12월 30일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국가방위력의 급진 적 발전' 방침은 북한의 이 같은 새로운 대남 노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김정은은 30일 전원회의에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한다고 강조
 - 여기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은 남한을 공격해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면전을 의미

- 이는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혁명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에 의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혁명주의적 통일전략'을 추진하다가 1948년 남북한에 두 개의 분단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의우월한 혁명무력에 기초하여 통일을 달성하려는 '군사주의적통일전략'으로 바꾸어 전쟁을 향해 나아간 것과 유사
 -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948년에서 1950년까지 남북한의 통일전략을 특징 지웠던 두 개의 경향으로 군사주의와 급진주의를 들고 있는데, '군사주의'(militarism)는 "전쟁과 전쟁을위한 준비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태도나 조합"으로 그리고 '급진주의'는 이것을 급진적 방법으로 조급하게 성취하려 의욕하는 것을 의미. 이 시기에 남한은급진주의와 군사주의의 정도에서 현저히 떨어졌으나 북한은이 두 가지가 거의 완벽하게 결합하여 '급진군사주의'로 나아 갔음.5)
 - 김정은의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발언과 지시 사항에는 '급진군사주의'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남.

⁵⁾ 박명림, "한국전쟁 - 시각, 이론, 방법, 해석의 문제 -,"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현 대정치사』(서울: 법문사, 1995), 181~182쪽 참조.

V. 맺음말

-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이면서 동시에 '사실상의 군주제 국가'임.
 - 그러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김정은의 권력은 그의 자 녀에게 이양될 것
 -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처음으로 군주제적인 권력세습을 했고, 3대 세습까지 했음.
 -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사회는 후계자의 권력장악력을 과소 평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김정일 사후에는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같은 예상은 모두 빗나갔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북한 붕괴론 과 한국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는 북한 지도부에 큰 불 안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
- 김정은에게 만약 자신을 닮은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후계자 로 내세울 것
 - 그러나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는 한국 정부의 초기 분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정부 당국도 초기 분석의 오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김주애 아래에 성별 미상의 동생이 있지만, 그 동생이 김주애 만큼의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다면 김정은은 그 동생보다 김 주애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이 김주애에 대해 김정은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김주애의 동생보다 김주애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 한국사회에서는 김주애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지배적이지만, 지금까지 김주애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외모뿐만 아니라 당당한 태도에서도 김정일의 스시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수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 모습을 연상케함.
 - 그리고 김정은 시대 김여정의 초고속 승진은 같은 '백두혈통' 인 그의 고모 김경희나, 항일 빨치산 2세의 대표주자인 최룡 해,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의 과거 승진 속도를 모두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여성관이나 인사 스타일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김일성이 1974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하고도 1980년 제 6차 당대회까지 그같은 사실을 로동신문에 공개하지 않고 로동 신문에서 김정일에 대해 '당중앙'이라는 용어로 표기했던 것처 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북한이 김주애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 '존경하는 자제분'이나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표현할 가 능성도 있음.
- 북한은 올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 대선이 있으므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대결적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서 대선 과정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현재 생존이나 협상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의 목표는 미국의 핵우산을 약화시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며, 김정은이 12월 30일 전원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는 것
- 그렇다면 향후 한미 및 한미일의 협력도 북한의 이 같은 '급 진군사주의' 목표를 좌절시키고 남북 한 간의 힘의 균형, 핵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6
- 북한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로 보지 않고,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본다면, 한국 정부와 사회도 그에 상응해서 대응을 모색할 필요
 -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과의 대북 접촉 창구가 모두 북한 외무성으로 바뀌게 되면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될 때 한 국의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
 - 그리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왔던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
- 한국을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하다"고 보는 김정은의 대남 인식 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미 안보자립이 반드시 필요
 -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독자적으로 상대할 수 있을

⁶⁾ 남북 핵 균형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로드맵 등에 대해서는 정성장,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서울: 메디치미디어, 2023) 참조.

- 때 북한도 한국정부를 더 이상 '괴뢰정권'으로 보지 않고 한 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
- 그리고 지나치게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가능해질 것
- 한국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북한은 그 런 한국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
 - 그러므로 여야가 국내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분야에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어렵다면, 적어도 전문가들 차원에서부터 보수 와 진보 간에 '초당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길의 모색이 바람직

정치분야_토론

토론문 2023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정치·외교·대남 분야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 북한에게 2023년은 증강(增强)과 증식(增殖)의 한 해, 즉 인민대중 제일중의에 대한 정치·사상적 정당성의 토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간 해로 평가
 - 북한은 2022년 한해 점증하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 및 기후변화(재해성 기후)를 국가의 '정상적 발전'의 최대 위협과 장애요소로 지목한 바 있음(《로동신문》, 2022/12/27: 4).
 -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2023년 중요한 목표는 핵·미사일 고 도화 및 농업부분에서의 관개수로 재정비였음.
 - 북한은 만리경-1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 이른바 '안경과 주 먹', 황주긴등물길 완공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토 대를 구축
 - *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12개 고지 달성 및 20년 대비 생산액 증가 규모를 수치로 언급하고, 그중 곡물 증산을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평가
 - 이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핵·미사일 고도화의 근거를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부야의 발전으로 설명

하고 있기 때문임. 국방과 경제를 동등한 수준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인민들에게 증명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상의 정 당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사회주의 지속성의 상징과 전당, 전국, 전사회 차원에서의 후계 임무 완성을 의미를 가진 김주애의 후계 구도
 - 우리 사회에서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의 등장으로 인해 미래 지 도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헌법을 통해 봤을 때, 여성은 북한에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진출에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어 보임.
 - * 북한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77조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 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로 규정
 - 첫째, 존귀하신이라는 수식어가 선대 수령에게만 사용되었으므로 김주애를 수령만큼이나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 둘째, 가장 사랑하는 자제 분이라는 표현은 자녀들 중 미래 지도자로서 점지해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 셋째, 행사 중 테이블 중앙에 자리하고 단독 사진도 공개하고 있다는 점, 넷째, 김정은위원장과 기념 우편에 등장, 다섯째, 북한 내에서 주애라는이름의 단속 등은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근거로 활용(정성장, 2023)

-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 보인 일련의 정치적 행위, 즉 수행된 상황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김주애 등장을 김정은의 후계자이냐 아니냐의 문 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북한 체제의 생존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주애 공개가 오래된 역사적 경험이 응축된 후계자 담론에 근거하고 있는지, 즉 수령의 후계자로 준비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칙적인 관행을 염두해 둔 것인지에 대한 여부임(엄현숙, 2023: 25).
 - * 후계자론에 의하면, 후계자는 선대 지도자에게 무한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혁명사상을 심화, 발전시키고 자신의 혁명사상 을 재창출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으로 고매한 품성을 가진 새세 대 인물이어야 함.
 -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김주애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물론 정성장의 말대로 김정일위원장이 그의 최측근들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은 위원장을 지목한 것이 그의 나이 만 8세 생일이었던 1992년 1월 8일부터였기 때문에 현재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하는 것도가능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틀에서 북한의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을 토 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임.
-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를 미사일 발사라는 국가 안보의 최전 선에 대동해 인민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 이 사라져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지속되다는 메시지를 대

내외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주애가 살아갈 미래의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해 경제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자체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천연자원 및 인력 등 내부 자원을 총동원해 일정 부분 성과를 통해 '버티기 전략'으로 체제를 운영해 갈 수는 있을 것임. 다시 말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보다 더 윤택한 경제, 사회적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고립과 압박이라는 족쇄를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김주애의 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승계 문제를 거론해 전당, 전 국가, 전사회적 차원에서 후계 임무를 완성해 나갈 것을 강조 하는 의미가 있음.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24년 1월 6일 KBS 남북의 창에 출 현해 탈북민 인터뷰 결과라며 "권력 승계라든지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갖고 있다"고 언급
 - 이것은 후계자로서 인민들에게 경제, 군사 등 '특정 성과'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권력승계, 세습에 대한 본질적인 불만을 의미함. 이러한 의미에서 대인민 친밀감의 형성의 중요함.
 - 후계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김 주애를 공식 등장시킨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승계 문제를 거론하고, 당·정·군 핵심 간부들을 중심으로 전당, 전국가, 전사회적 차원에서 당의 후계임무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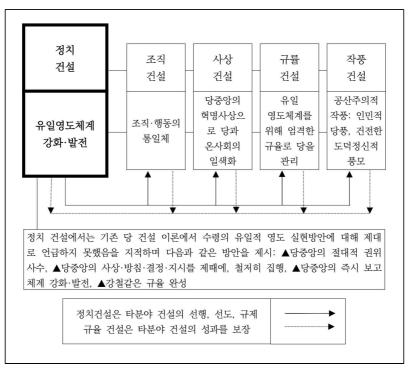
- 이러한 정치행위는 ①당과 정부의 정확한 영도의 연속성과 안 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조치, ②세대 간의 협력과 연속성 강조의 의미, ③김주애에게 성과를 통한 소위 '혁명지분'을 제공, ④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후계집단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임.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혁명대업을 이을 진정한 후계자를 조직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판단된(장유미, 2023:105).

□ 5대 당 건설노선의 발전을 통해 당의 영도력 강화를 위한 거너넌스 확립

-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 일색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던 2022년 10월 17일 김정은은 당 간부 양성의 최고교육기관인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을 함.
 - 김정은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핵심과제임을 강조. 그는 기존까지 당은 주로 조직, 사상, 영도예술 이 세 방면에 주력해 왔음을 지적하며, 당 건설의 수준 향상을 통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정치 건설, 조직 건설, 사상 건설, 규율 건설, 작풍 건설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5대 당 건설 방향을 제시
 - 북한이 새 시대 새로운 5대 당 건설노선을 발표한 이유는 당 건설을 통해 당과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제어하는 능력을 향 상시키는 위한 것으로 김정은이 각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점 들을 깊이 인식한 결과로 보임.

- 북한은 5대 당 건설노선의 강조와 동시에 최초로 2023년 10월 29일 련포온실농장에 김정은의 단독 혁명사적비를, 평양의 위성도시인 평성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공동 혁명사적비를 건립함(《로동신문》, 2023/10/30: 2; 2023/11/16: 2).
 - 북한은 2023년에만 김정은(김일성-김정일-김정은 공동 포함)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 현지지도 표식비를 총 16개를 건립하였지만 단독 혁명사적비와 선대 지도자들과 나란히 혁명사적비를 건립한 적은 없었다(《로동신문》, 2023/3/26: 2; 2023/5/10: 2; 2023/5/31: 2; 2023/6/06: 2; 2023/6/09: 2; 2023/6/12: 2; 2023/6/23: 2; 2023/9/19: 1; 2023/10/4: 2; 2023/10/5: 2; 2023/10/12: 1; 2023/10/14: 2; 2023/10/31: 2; 2023/11/3: 2; 2023/11/16: 2; 2023/11/16: 2).
 - 김정은의 혁명사적비 사적비 건립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을 의미하지만, 수령의 혁명역사를 통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힘을 경제발전 및 혁명, 건설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한성훈, 2019: 51).

5대 당 건설 노선 체계도



자료: 《로동신문》, 2022/10/18: 1~3; 2023/3/11: 3; 2023/5/10: 2; 2023/5/17: 2; 2023/5/21: 2; 2023/5/24: 2; 2023/5/31: 2; 2023/6/10: 2; 2023/6/13: 2; 2023/6/17: 2; 2023/6/20: 2; 2023/7/2: 2; 2023/7/5: 2; 2023/7/11: 2; 2023/7/15: 2; 2023/7/19: 2; 2023/7/22: 2; 2023/8/2: 2; 2023/8/4: 2; 2023/8/20: 2; 2023/9/26: 2; 2023/10/4: 2; 2023/10/15: 2; 2023/10/17: 1; 2023/10/21: 2; 2023/10/26: 2; 2023/10/29: 2; 2023/11/3: 2; 2023/11/7: 2; 2023/11/13: 2)를 중합해 저자 작성.

○ 5대 당 건설노선은 당이 당을 관리하는 능력과 당의 지도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중장기적 통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5대 당 건설 노선은 핵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무기로 당과

- 국가를 김정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전면적으로, 엄격 하게, 다스리고,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정치 건설을 타 건설에 선행 및 규제시키고 규율 건설을 통해 타 분야의 성과를 보장한다는 것은 정치·사상을 통해 당을 건 설하고, 규율을 통해 당을 엄격히 지도·관리한다는 의미로 해 석됨.
- 향후 북한은 당-국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들을 5대 당 건설노선에 의한 결과로 과시하면서 그것을 김정은의 당 건 설과 혁명영도의 업적으로 치적화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당 제8기 제9차 전 원회의를 개최하면서 당 사업체계의 혁신과 핵무력정책의 법 제화, 헌법 명기를 새 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관철하는 과정 에서 달성한 정치적 사변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도 알 수 있음(《로동신문》, 2023/12/27: 1).
- 이로서 김정은 시대 통치 전략의 특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데, 바로 정치·사상을 통한 당 건설의 확고한 방침과 법·제도를 통한 당의 통치 방침의 접목임.
- 이러한 패턴은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법치간 관계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하고 당의 영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되어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법치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 핵무력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헌법에 명시: 최고 지도자에게 체제 보위를 위해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 극대화 및 혁명 4세대의 핵무력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북한은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개최 해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헌법 에도 명시
 - 북한은 2022년 9월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진행하고 9월 8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 책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법령 채택
 - *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 민의 크나큰 자랑", "공화국 핵무력은 곧 조국와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 "국가방위력을 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절대적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공화국 무장력을 더더욱 불패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국정부 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로동신문》, 2022/9/9: 2).
 - 핵은 더이상 흥정물이 아니며 전쟁억제력 강화가 핵무력정 책의 본질적 목적임을 알 수 있음.
 - 북한에서 김정은은 이른바 핵 프로그램의 3세대임. 1세대 김일성은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세대 김정일은 발전시 켜 나갔으며, 제3세대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음. 국 가핵정책을 법령화한다는 것은 향후 4세대가 핵무력 증강을 위해 구체적인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 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에서 국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과 핵뿐임. 이들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생존 구조 형성과 발전에 매우 중요

한 정치·사상·군사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김정은의 후대세대들도 이러한 인식을 지속해 갈 것으로 예상됨.

- □ 김정은식 사회주의 배급제 부활을 통한 공산주의 이상향으로의 동원력 강화
 - 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두 번째 의정으로 '학생소년들 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에 대해서 토의
 - 북한은 2021년 12월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질좋은 교복과 가장을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 북한은 김정은이 2023년도 가방, 신발 생 산 및 공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고 보도
 -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 입힌다고 하여 인민생활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고수하고 사회주의본태를 살리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우리는 힘이 들어도이런 인민적시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한다고 하시면서…(《로동신문》, 2023/4/1: 1).
 -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것을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우리 당의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정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교복생산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로동신문》, 2023/4/1: 1).

- 북한은 전국 학생들에게 무상 교복, 가방, 신발 등 교육에 필요 한 용품들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소위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음.
 -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식량이 배급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충분치 못한 식량 사정으로 인해 무상 교육 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보임.
 - 1980~90년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날에만 특별하게 받을 수 있었던 선물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배급받으며, 북한식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기존 인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통치이 념이 인민들에게 celebration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 시켜 인민들에게 당과 수령을 위한 애국과 헌신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가로 규정: 국가와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사이의 이중잣대 제거를 통한 국가정체성 강화 및 상호 인정·존중의 관계로의 전환을 시도
 - 김정은은 "핵전쟁접경에 아른 한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 경"을 바탕으로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천명, 대남부문에서 근 본적인 방향전환 노선을 제시
 -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약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

- 역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북한의 '정권붕괴', '흡수통일'이었으며,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하는 우리와는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
- "현실을 인정하고 남측과의 관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면서 '정 권붕괴',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우리를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주장
-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 다"며, 이에 따라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
- 2024년 1월 1일 외무상 최선희가 "대남대적부문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관계부문 일군 협의회를 진행. 이 협의회에는 리선권(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대남관계 부문 일군들이 참가
- 북한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며 북측 응원단의 체류 비용 제공 거부, 그러나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프로그램인 양궁에 대한 vision program에 대한 명분없는 거부에 대해 반발한 바 있음.
 -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북한은 2015년 8월 평양시간을 제시하며 두 개의 조선을 준비해 왔음.
 - 2023년 7월 1일 금강산 사안에 대해 최초로 외무성 차원에서 자신들의 영토, 입국을 표현하며 대응, 이후 7월 10일 김 여정 부부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대남 거리두기 및 우리에 대한 조롱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북한의 이러한 파격적인 노선 선언은 국가 대 국가관계 설정을 통해 이중잣대를 제거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명분과 실리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자신들의 발전을 저애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장애 중 하나를 한미의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하고 했음. 현재 한반도는 한미가 억제하면 북한의 대응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위협하면 한미가 핵자산을 동원해 더 큰 억지력으로 대응하는 안보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임.
- 북한의 목적은 우선 남한과 국제사회 모두로부터 분명한 주 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국가체로서 존중을 받기 위한 것이 라 판단됨. 북한을 50여 차례 방문하고 이전 빌 리차드슨 전 미 뉴멕시코주 주지사 등의 advisor의 역할을 했던 재미 학 자 박한식 전 조지아대학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 권국가로서의 인정과 존중이라고 말한 바 있음.
- 김정은이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의 두 교전 국가로 정의한 것은 우선 남북한 모두 국가성을 인정하고, 북한에게 불리한 이중잣대를 제거해 주권국가로서의 제도적 존중 획득 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불안감과 그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핵, 미사일 프로 그램의 고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 2023년 12월 20일 김성 주유엔북한대표부 대표는 한미만 아 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보의 불안감도 이해해달라고 국제 사회에 호소

-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가 대 국가관계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임.
 - 1972년 동서독은 서로를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서독 기본조약('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관계 기초에 대한 조약')을 체결함. 이 조약은 동서독이 공식 국호를 통해 조약이라는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제도의 틀에서 관계를 재시작함을 의미했음.
 - 북한도 이러한 틀에서 남북관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향후 남북 간 조약, 협정 체결시 국가 간 조약과 협정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전 대북지원 결정시 남북관계발전법 내 '국민들에게 심중한 경제 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이러한 주장은 분단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의 해법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현재 한반도의 안보딜레마를 보면 남북이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그리고 북한은 남한과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신뢰조차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임.
 - 최선희 외무상이 대남관계 부분 조직 정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남관계는 외무성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체계 수립이 필요해 보임.

- 중요한 것은 북한이 두 개의 국가, 교전국가로 정의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수용해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 가 있음.
 - 헌법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상 술한 정의를 통해서 손실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됨.
 - 예를 들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의 주장의 설득력 상실, 예방 전쟁의 정당성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이라는 체계와 논리를 새로이 해야하는 상황에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군사

발표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교수)



군사분야_발표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I. 북한의 군사 안보 환경과 정세 인식

- □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블랙홀 속으로 뛰어든 한반도와 이에 편승한 북한의 전략적 행보
 - G0 진영화와 신냉전(?)의 국제적 안보환경 도래로 강대국 정치 의 부활과 국익 중심의 각자도생 심화
 - 미중의 전략적 대결과 중국-러시아 블록화를 과거 냉전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세력 (미국, 유럽연합) vs 권위주의세력(중국, 러시아) 간 진영 갈등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친미 vs 반미(비미)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지도 불분명
 -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확 전은 미국의 쇠퇴와 패권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 중 심의 진영과 중-러 중심의 진영 간 갈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
 - 전쟁 준비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군사(우선)주의 와 군비경쟁의 시대의 재도래 한편 국익을 위해서는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보이는 각자도생 추구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구조는 다자지역주의 부재 속에 한-미-일 vs 북-중-러의 갈등 구조로 퇴화
 - 북핵 문제를 내세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유엔사 재활성 화의 대중국 포위망, 남중국해와 대만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경쟁 가속화
 -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의 통합과 더불어 동맹·우방국의 역량·능력까지 포괄하는 사실상 대중국 통합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 구축의 일환
 - 인태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상정하고 전진 배치된 미군 전력과 역내 가용한 동맹 자원은 물론 나토의 인태지역 행에서 나타난 것처럼 필요시 대서양 동맹도 동북아에 활용
 - 재진영화된 국제질서 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 력 강화를 바탕으로 서구 중심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 혹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러시아,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이 있을지 의문
- □ 2024년 미국 대선과 남한의 총선 등의 정치적 일정으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은 학습효과로 상황을 명확히 인지
 - 러-우 전쟁 장기화 및 중동정세 불안정 지속 가능성이 높은 가 운데 미 대선 국면 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 의 관심 부족
 -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와 협상하기보다는 미국 대선 이후를 지켜보면서 기존의 대미 강경 입장으로 지속할 가능성

- 그러나 현 국제질서 하에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 하는지를 기대하고 움직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 선 결과가 드러나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도 큰 변화 를 예상하는 것은 희망론일 가능성이 큼.
- 오히려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워싱턴 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목소리가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레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이 축소되고 외교적으로 상대적 자율성을 추구 하는데 한계 노정
 - 국제적인 제재 레짐이 강화되었음에도 북한이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상황에 직면
 - 북한은 남한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하에 경직되어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
- 미국 대선이나 남한의 총선보다 북중, 북러 관계가 한반도 정세 와 북한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미 대선 국면과 남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상 역설적으로 내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북중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의 방한 또는 김정은 방중 가능성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중교류의 전면적 정상화 가능성
 - 북러관계 역시 5월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 강화 전망

- □ 북한은 핵무력을 바탕으로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외적 자율성 확장과 대내적 성과에 집중
 - 북한은 하노이 이후 미국을 우선 상대하여 생존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실상 접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입장 불변
 - 북한은 두 개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신냉전, 진영화 구조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정권 생존 및 체제 유지의 안전핀과 제재를 사실상 무실화
 - 북한이 현 국제체제가 더이상 미국 중심 단극체제가 아니 다 극체제로 인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이해관계를 같 이하는 국가와 연대한 공세적 외교전략 모색
 - 특히 대외적으로 대러 밀착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속에 북중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속
 - 지난 2023년 북러관계를 군사협력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안되며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
 - 향후에도 북중러가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현재와 같이 양자관계에 집중

Ⅱ. 2023년 북한 군사 분야 및 한반도 위기 평가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북한 군사 분야 주요 성과〉

-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공화국헌법에 국가핵무 력강화정책을 명시
 -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할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 하고 나라의 존엄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동시에 적들에게 치명적인 심대한 타격을 안긴 정치적 사변
- 대중적인 애국운동과 열병식을 비롯한 대정치군사축전들을 통해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과 위신, 일심단결된 참모습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
 - 애국미헌납운동과 함선헌납운동과 같은 사회주의애국운동,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소년》호, 《대학생청년》호, 《직맹》호, 《농근맹》호, 《녀맹》호, 《부사수》호로 명명된방사포, 장탄차, 뻐스들이 증정
 - 력대수준을 계속 초월하며 조선인민군창건 75돐, 조국해방전 쟁승리 70돐, 공화국창건 75돐을 계기로 세차례나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
- O 국가방위력의 중요구성부분이고 초강력의 전쟁억제력인 핵무기발전
 -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을 여러차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우월성 을 검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망적인 전략무력건설방향 을 확정

- 전술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발사훈련들을 비롯한 중요군사활 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무인기 들이 개발되였으며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 국무력의 무비한 림전태세와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
-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켜 우주정 찰자산을 보유한것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공화국무력현대화의 선결중대과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우리 국가의 전 략적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상승시킨 일대 장거
- □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가속화와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2023년 김정은 정권은 첨단전략무기 개발·실험 성공 등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여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의 상당부분 성과 실현
 - 새로운 고체연료 기반 ICBM인 화성 18형을 2023년 4월 13일, 7월 12일 두 차례 시험발사하고 12월 18일에는 발사훈련 실시하였으며 화성 15형 기습발사훈련(2월 18일), 17형(3월 16일) 각 1회 총 5차례 ICBM 발사 실시
 -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3회,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6회의 발사 및 전술핵무기 탑재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진수 를 공개
 -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2차례나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

를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 엔진화와 발사 수단 및 방법의 다양화로 핵무력 강화와 재래식 무기 현 대화의 승수효과 극대화

- 2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11월 22일 세 번째 시도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

※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최우선 5대 전략과업」 추진 현황

과업내용	진행 상황 확인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핵 완료, 영변 핵시설 및 우라늄 농축
전술무기화,	시설 가동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 김정은 핵물질/핵탄두 생산 확대 지시
15,000km 사정권내 명중률 제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화성 17형(액체), 18형(고체) 발사 성공 *김여정담화를 통해 정상발사예고 (대기권 재진입)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 최초발사 2022. 1.5(2차), 1.11(3차) 시험발사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엔진	2022.12.15. 대출력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ICBM	시험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	*북극성5형 엔진으로 평가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8차 당대회시 연구종료 및 최종심사단계 주장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km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의 개발 등을 추가 제시하였으나 지난해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에 대한 언급은 미공개

- 핵무력 강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국 방분야 성과를 극대화
 - 9월 최고인민회의 통해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

- 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라고 명기
- 정치적 행사와 대봉운동을 통해 5개년계획을 자신들의 로드 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 여 대외적으로는 양보나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 확히 하고 대내적으로 안보적 우려 해소와 내부 결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와 경제사회 간의 부조화 및 경 제 및 사회 불안정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북한의 발사한 미사일 중 절반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력의 실전화에 집중하며 핵탄두 탑재 가능한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과 투발 수단의 다양화로 핵무력운영전략을 공세적 확장
 - 2022년 대남 '선제 핵공격' 위협이 2023년에는 여러차례 실 전훈련으로 나타나고, 8월 29일에는 남한점령을 가상한 '전 군지휘훈련'까지 실시 공개
 - 미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차원의 응징적 억지능력 과 함께 역내 사용 가능한 작전·전술적 차원의 거부적 억지능 력을 동시 구사

□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 및 위기의 심화

○ 북한은 핵무력과 국가방위력 강화 의도는 대남 대미 위협 및 대북정책 변화를 위한 압박 차원이라기보다 원인을 미국과 남 한에게 돌리며 국방력 강화 지속 추진의 명분과 정당성 마련

-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북미대화 요구나 제재해제 등 미국의 선제적 행동을 강압하거나 남한의 대미설득 역할을 강요 및 남북관계 제고 등 대외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 국제질서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나 미국의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바라거 나 의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강화,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국방력 강화 및 군사행동을 정당화
- 9.19 군사합의라는 완충장치이자 안전핀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 북한의 군사도발의 지리적 내용적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및 위기의 도화선이 상존하는 상황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연결하여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한 것을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성 성명서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으며 중단되었던 모 든 군사적 조치들을 회복하겠다고 발표
 - 무엇보다 우발적 충돌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군사분계선 및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및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이 증가

Ⅲ. 2024년 북한 군사 분야 전망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2024년 북한 군사분야 주요 예정 과업〉

-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 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 나갈데 대한 중 요과업들을 제시
 - 만일의 경우 발생할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 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 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에 계속 박차
- 군수공업부문이 국방공업의 자립적 토대 강화와 무장장비개발생산 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더욱 확충시켜 우리당 국방발전전략의 성공 적 실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안에 집행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제시
 - 핵무기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일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구축해나 가며 2024년도 핵무기생산계획수행을 위한 힘있는 투쟁을 전개
 - 미싸일개발 및 생산부문의 중점목표들과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
 -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올릴데 대한 과업이 천 명되였으며 우주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국가 적차원의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
 - 제2차 함선공업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

- 무인항공공업부문과 탐지전자전부문에서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무장장비들과 위력한 전자전수단들을 개발생산할데 대하여 강조
- 민방위무력부문에서 적들의 그 어떤 전투행동수법에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부단히 혁신
 -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작전지휘수준과 대원들의 전투행동 능력을 더욱 높이는 등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들이 제시
- □ 북한은 국방 및 경제 성과 극대화로 2025년 9차 당대회(하반기) 준비에 매진
 -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안에 집행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2024년에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 사업 중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나 다소 미진한 부분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당창건 80돌인 2025년 후반기 제9차 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2024년이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라고 인식하고 8차 당대회 5개년 계획 완수 투쟁에 집중
 - 핵무기의 양적 증가와 실전배치 및 운용 수준을 높이는데 보다 집중하면서 첨단무기 분야의 기술적 진전을 통한 질적 고도화를 병행
 - ① ICBM의 정상각도 실거리 발사를 통해 대기권재진입기술 확인

- ② 다탄두 실물 공개 및 개별유도 기술 확인을 위한 시험
- ③ 바지에서 발사한 SLBM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서 발사하 거나 지난해 진수한 전술핵무기 탑재 잠수함 '김군옥 영 웅함'에서 소형SLBM(KN-23 수중발사용)을 발사하고 작 전 배치
- ④ 제2차 함선공업혁명 차원에서 고래급(구소련 G급) 3000 톤급 신형잠수함과 핵잠수함 개발 관련 사항 공개 및 수 상함 해군전력 현대화
- ⑤ 개발이 진행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과 함께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와 무인정찰탐지수단 등 에 대한 국방정책과제들도 지속 추진 예상
- 북중, 북러관계 밀착을 통해 국방 및 경제 5개년 계획 완수에 필요한 지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특히 북러관계 발전에 따른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으로 신형전투기 도입 및 구형 전투 기 개량과 함께 성능이 개량된 군사정찰 위성 3개의 추가 발사와 관련 위성 사진 공개, 첨단 군사과학 분야에 있어 기술 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2024년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 북은 이미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핵교리를 법제화하고 전술핵운용부대까지 조직해 훈련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개발이나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기술적이유로 제7차 핵실험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탄두

개발을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핵실험보다 ICBM 실거리 발사나 핵 탑재가 가능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한국이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대선 국면에서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 대화 재개 요구나 제재 완화 등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 카드를 쓸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증명하고 무엇보다 진형화된 국제구조 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핵 비 확산 틀과 규범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음.
- 민방위무력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경제와 국방에 가용인력 의 총력전에 따라 역설적으로 군의 경제적 활동 및 역할이 보 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로농적위군을 중심으로 열렸던 열병식에서 방사포 등 기존에 북한군이 운용해 오던 구형 재래식 무기의 상당부분 이 이전되어 개량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 전략전술 과 군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 □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은 가 운데 대내적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치에 집중하면서 대남· 대외 긴장 및 위협 수위 조절
 - 남북관계 교착 국면 지속 하에 핵무기를 이용한 대남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고 정교해지고, 군사적 불확실성, 불안정성 심화

-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물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지원이나 사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지속 고수할 것으로 보임.
- 현 남한 정부 역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적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워싱턴선언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공동선언에 나타난 것처럼 한미동맹에 경도되고 한미일 군사협력의 가속화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충돌 가능성 점증
 - 북한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시작하였고 지상 및 NLL 등에서 군사 배치 및 활동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회귀하 였다는 점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및 위기를 점증적으로 고 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
 -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동계훈련 막바지 국가급 종합훈련 시기가 겹치면서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거부반응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응한 북한의 무기 개발과 군 사적 위협은 지속될 전망
 -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군사행동과 드론 침투, 사이버 공격 등으로 우리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 과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명분이 대북전단살포였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충돌 우려는 물론 역 으로 북한이 육상은 물론 NLL 인접 해상에서 민간인으로 위 장하고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상황에 우려

- *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통해 "각계각 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힘. 실제로 인쇄된 전단을 공개하고 1,200만 장의 삐라와 3,000여 개의 풍선 등이 준비됐다고 했다가 김정은의 지시로 보류함.
-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부 결속에 필요한 수준에서의 긴 장감 유지 및 위협 수위 조절
 - 북한이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기정 사실화하고,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와 과업 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활용한 대남·대외 위협은 더 욱 잦아지고 그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
 -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경제에 매진하기 위한 안 정적인 안보환경 유지를 저해하는 과도한 위기나 불안 조성 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군사분야_토론

토론문 북한 군사분야 평가와 전망

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Ⅰ. 북한 8차 당 대회 이후 국방분야 과업에 대한 달성도 평가

1.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진행 평가

○ 북한이 8차 당대회('21.1.)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 업은 △수중·지상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로 추정1)

〈표 1〉 최우선 5대 과업 사업 진행 수준

과업 목표	진행 수준
• 수중·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 화성-18형(2023.4.13., 7.12.) 시험발사 • 신형 IRBM에 사용할 고체엔진 시험 발표(2023.11.11., 11.14.)
• 극초음속 미사일	• 2021년 9월 28일(화성-8형), 2022년 1월 5일, 11일 시험발사 • 과업 완수 주장(2023.2.1.)
• 초대형 핵탄두 생산	• 확인된 바 없음
•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전략무기	• 핵잠수함, 확인된 바 없음 • 해일-1·2 시험발사(2023.3.21., 3.25-27., 4.44.7.)
• 15,000km 사정권 안의 타격명 중률 제고	•확인된 바 없음

¹⁾ 북한에서 최우선 5대 과업에 무엇이 포함된 것인지 정확히 밝힌 적은 없으나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위의 5개로 추정되고 있음.

- 수중·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3차례(4.14., 7.12., 12.18.) 고체연료를 탑재한 ICBM 화성-18형을 발사하여 단중거리에 이어 보유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고체연료화에 성공
 - * 1단계에서 정상각으로 발사되는 등 유도조정기술이 진전된 것으로 보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시험발사가 필요하며 ICBM의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직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 *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2023년 11월 11일과 14 일에 신형 IRBM에 사용할 고체엔진에 대한 시험발사도 강행
- 극초음속 미사일: 8차 당대회에서 탄두 설계 완료를 공개하고 2022년 1월 5일과 11일 시험발사 후 개발 완료를 선언했으나 실전 배치는 미확인 상태
 - * 회피비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러시아만 실 전배치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기술력 또한 실전배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고 중러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형태 정도일 것으로 추정
- 수중발사 전략무기: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2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존 잠수정에 원격조종장치를 설치한 것이라는 평가
 - * 잠수정의 원격조정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 운용가능하고 디젤 엔진을 사용하여 한미 해군에 쉽게 탐 지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 전체적인 사업 진척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과 핵잠수함, 장거리탄도미사일의 정확도 증가 등 외부로 알려지 지 않은 사업들도 물밑에서 준비 중일 것으로 추정
 - 초대형 핵탄두 생산은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진 핵탄두 생산

- 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정세를 감안하여 당장 핵실험은 불 가하더라도 이론적 설계 단계에는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
- 원자력추진잠수함 또한 북한은 이미 설계 완료를 했다고 주 장하는 바, 잠수함용 원자로 건설 등 이후 단계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

2. 최중대 연구사업 진행 상황

○ 김정은은 8차 당대회('21.1.)에서 최중대 연구사업으로 △군사정 찰위성 운용을 통한 정찰정보수집능력 확보 △무인정찰기 등 정 찰수단 개발을 언급²⁾

〈표 2〉 최중대 연구사업

과업 목표	진행 수준
•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통한 정찰정보수집 능력 확보	• 만리경-1호 발사, 궤적 진입 (2023.11.21.)
• 무인정찰기 등 정찰수단 개발	• 신형 무인기 공개 (2023.7.27.)

- 2023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무인기 '새별-4형'과 '새 별-9형'을 공개
 -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형은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은 외형상 무인

²⁾ 한편 조선중앙통신(2021.9.28.)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면 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5대 과업'이자 '최중대 과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사실상 최우선 5대 과업과 최중대 과업이 완전히 별개로 분리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

공격기 MO-9 리퍼를 닮은 것으로 평가

- 평양 시가지를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하였으나 센서와 위성 통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확한 능력 확인 불가 * 외형만 미국의 무인기를 본 따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바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의 전투기와 방공망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찰위성발사 성공으로 2023년을 기념 비적인 한 해로 마무리
 - 3차 정찰위성발사의 성공('23.11.21.)은 실제 위성 능력과는 상관없이 5개년계획 3년 차에 거둔 가장 큰 성과
 - 로켓능력과 위성능력을 모두 갖춘 국가가 드물고 위성 본연 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우주'강 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자평 예상
 - 러시아의 지원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의 모범사례로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내부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평가

3. 기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및 핵탄두 증산

- 2021년 12월,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으로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핵탄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생산"을 언급
 -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 북한이 직접 무기 생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은 어렵지만 국내 소비와 수출 가 능성을 열어두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 김정은, 2023년 8월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비약적 생산 주문
- 핵탄보유량의 증산: 북한이 관련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핵탄두를 증산하고 있는지 확인 불가능
 - * 핵물질 증산과 핵탄두 증산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추정해 볼수 있는데, 핵물질의 경우 생산량이 한정적인 플루토늄보다는 우라늄을, 핵탄두의 경우 적은 핵물질로도 많은 탄두를 만들기 위해 전술핵용 핵탄두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결론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목표사업들은 일정 수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완성도를 따질 경우 과업을 완료했다고 보기 어려운 무기체계들이 다수이나 '핵무력 고도화'라는 방향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현 시점에서 실전배치 가능성은 다소 의문이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들이 대남·대미 억제력 및 위협 효과 창출에 효과적인 가를 따져본다면 긍정적 답변 가능
 - * 다종의 무기체계 개발은 한미연합군의 방어와 공격에 대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북한 정권의 방어에도 유리
 - 이밖에도 북한은 미사일공업절(11.18.) 지정, 핵무력 고도화 헌법 명기 등 국제사회의 인정 여부와 다소 불안정한 핵능력 과는 별개로 제도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 없이 확립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Ⅱ. 2024년 북한 군사분야 정책추진 방향 전망

1. 총평 및 8기 9차 전원회의 분석

- 김정은 정권은 현재의 대미강경노선을 고수하는 한편, 중러와의 관계 공고화에 집중하면서 비핵화 대화/협상에 무관심한 태도 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
 - △중러북 vs. 한미일의 대결구도의 지속 △중러북 관계 강화에 따른 이익 기대 △국제분쟁으로 인한 미국의 관심 분산 등이 배경으로 작용
 - 대남, 대미 접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과 반비례하여 러시 아와의 협력을 통한 군사력 균형 달성에 관심이 커지면서 군 사력 강화에 집중
- 9차 당대회의 개최에 앞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목표한 무기체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 내부적으로 2025년까지 설정한 과업 목표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9차 당대회에서 개략적인 결산 발표 예상
 - 군수공업 분야 생산능력 증가 주문 및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2024년 3개의 정찰위성 발사 언급(8기 9차 전원회의)
- 북한의 2024년 군사도발은 주로 무기시험 혹은 한미연합훈련 에 맞대응 훈련의 형태 예상
 - 전술핵무기와 같이 이미 완성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미연합

- 훈련에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의거한 실전 대비 훈련 전개
-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지 않는 기간에는 주로 신형 무기체계 시 험 혹은 해상에서 잠수함 진수 등 핵무기 플랫폼을 위주로 점검
- 러우전쟁이 2024년에도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북러의 정치적 연대와 군사협력의 확대 예상
 - 북한은 러시아를 △중국의 대안 국가 △한미연합군에 대항하여 군사력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상대 △무기개발 과정에서 직면했던 기술적 난제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국가로 판단하고 러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에 상응하여 러시아 대북 경제지원과 재래식 무기 분야, 우주개발 분야에서 양국협력이 계속될 것 으로 예상
- 8기 9차 전원회의는 최근 몇 년 간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보여온 △현 정세평가(위기), △기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핵무력 고도화로 통용되는 국방력 강화) △구체적 과업 내용(무기체계 개발 등) 언급의 순서가 그대로 답습
 - 현 정세를 위기로 판단하고, 이 같은 불안정한 안보정세의 원 인을 미국과 남한에 돌리면서 국방력 강화 방침의 필연성을 제기하는 패턴 반복
 - *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 핵협의그룹(NCG), 각종 전략자 산 전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이 모든 행위들 을 침략전쟁 기도로 규정
 - 국방력 강화 방침은 필연적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건설을 지속할 예정임을 선언

- 구체적으로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미사일 개발 및 생산 부문 △우주개발 부문 △선박공업부문 △무인항공공업 부문과 탐지전자전 부문 △민방위 무력 부문 등에서 발전 언급

2. 북한 전략무기 개발 분야 전망

-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추가 위성 시험 발사
 -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을 수시 관찰하기 위해 최소 5~6개의 위성(저궤도)을 목표로 향후 3년간 잦은 위성 시험 발사 예상
 - * 고출력 고체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화성-18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이후 고도 35,000km 이상의 정지궤도 위성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
 - 발사체와 위성 능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서 북한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 예상
- 김정은이 지난해 '해육공'을 선언한 데 2024년에는 2차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해군력 강화에 집중 전망
 - '제2차 함선공업혁명'은 SLBM 자체보다는 동해상 혹은 나아 가 태평양에서 항시 패트롤이 가능한 잠수함의 안정성 향상 과 추가 잠수함 건조에 주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 * 현재는 북한 잠수함이 원산 이남-신포 등 한정된 공간에서 진수하고 있어 한미연합군에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주 기적으로 물 밖으로 떠올라야 하는 만큼 2차 타격능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잠수함이 서로 교대하면서 임무 수

행을 목표로 추가적인 잠수함 건조 필요

- 동시에 김군옥 영웅함의 잠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불 요추진체계(AIP) 기술 확보에도 관심을 둘 것으로 추정
-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수요는 존재하나 실행에 옮기기까지 정 치적 고려가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
 - 투발수단 개발보다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끌기 차원 혹은 핵경쟁 중인 미중러가 먼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북한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
 -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메가톤급 폭발력 확인이나 혹은 전술 핵 탑재를 위한 소형화 핵실험의 가능성 모두 열린 상태

3. 북한 군사도발 형태 전망

- 판문점 및 DMZ 지역 병력 집중을 통해 경계 강화 및 위협 고 조 및 한미연합훈련 기간 집중적인 군사도발 계속
 - 대적투쟁 원칙,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전면파기와 군사분계선 병력 강화로 대응
 -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단순하고 원시적인 공격의 성공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구식 무기들을 재점검하고 가치를 재확인
 -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는 않겠으나 첨단무기체계의 취약점을 공략, 동시다발적 공격 개시, 재래식 무기와 핵 전력의 배합 등을 맞대응 훈련에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가능
- 다만 핵무력이 고도화되는 만큼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여 남한 을 겨냥한 직접적인 재래식 군사공격은 자제 예상

- 남북이 모두 압도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식 갈등의 발발은 핵전쟁으로의 위험성을 내포
-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목표한 개발계획 등을 성취(기술적 진보 달성)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을 가능성
- 한미연합훈련 기간 맞대응 훈련을 계속하여 한미연합군을 두려 워하지 않는다는 공세성 표출
 -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들을 전술핵미사일 부대에 분산 배치하 여 실전에 대비한 강도 높은 훈련을 강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맞대응 훈련의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
 - * 그러나 김정은이 직접 해군력 강화를 주문한 만큼 불안정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 기간 신형 잠수함에서의 미 사일 시험발사도 진행 가능
 - 때론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맞대응 훈련을 대체한 점으로 볼 때 향후에도 추가 인공위성 발사시험이나 핵실험 등 대형도 발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할 가능성 배제 불가

4. 러북 군사협력 전망

- 북한은 안정적인 후방기지로서 러시아에 제공할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포탄과 달리, 북한산 포탄은 유도 능력이 없고 정확도와 품질의 항상성이 떨어지므로 러 시아의 기술지원 가능성 배제 불가

- 다만 러시아는 북한이 제공하는 군사지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군사협력만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2024년에도 대부분 북한의 자체적 힘에 의한 무기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불가
-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은 플랫폼 구축과 우주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민감성을 고려하여 ICBM의 재진입, 유도기술이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완성되는 것에는 러시아 또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커 미사일 개발보다는 플랫폼 개발 지원 예상
 - * 전투기는 미사일을 탑재하여 목표물을 향해 이동하면서 적에 게 움직임이 포착되므로 은밀성에서 다른 투발수단보다 훨씬 불리하며 전투기 개발, 수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따져볼 때 북한의 공군력 강화는 후순위로 밀려 있을 가능성 농후. 다만 오래된 러시아산 미그기를 헐값에 구매할 가능성은 있음.
 - 북한은 해상에서 기습, 2차 타격 능력을 위해 잠수함의 잠항 능력, 소음 감소, 감시장비 및 레이더 성능과 관련하여 러시 아의 지워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
- 러북 연합해상훈련은 가까운 시일내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 며 훈련이 진행되더라도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현대적인 군 훈련체계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관심은 지대할 것이나 연합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규모 훈련을 진행하거나 시뮬레이션 형 태의 연습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부 지도자들의 잦은 만남이 성사될 수 있으며 북한 군부의 러시아 군사훈련 현장 참관도 이루어 질 가능성 //끝//

경제

발표

2023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4년 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분야_발표

2023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4년 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1. 2023년 북한경제 실적: 8기 9차 전원회의 공식매체 보도내용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12.26.~30)에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2023년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큰 성과를 강조하고 만족감을 표시
 - 그는 "한마디로 우리는 이 해의 투쟁을 통하여 예정하였던 5 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 년도를 단순히 경과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속도 를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 는 획기적인 성과를 쟁취"했다고 밝힘.
 - 더욱이 그는 "당 제8차 대회 이후 한해 한해가 미증유의 기적과 변혁들로 기록되었지만 올해처럼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로 충만된 해는 없었다"고 자찬
- 2023년 경제분야에 대한 그의 보고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분야 실적에 대한 구체성과 수치

- 많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산업과 품목에 대해, 게다가 구체 적인 수치를 제시해 가면서 성과를 강조
- 게다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증가율뿐 아니라 8 차 당대회 직전인 2020년 대비(즉 3년 전 대비) 증가율까지 제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보임.
- 매년 초의 신년사 및 그 대체물(연말의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만 놓고 보면, 김정은 시대에 공개적인 회의/보도에서 이렇게 많이 수치를 제시해 가며 성과를 내세운 것은 아마도 집 권한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
- 북한에서는 대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내세울 성과가 별로 없으면, 성과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더욱이 수치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관례

○ 그는 경제분야의 핵심적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 우선 지난해 사실상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12대 중요고지의 경우, 알곡(식량)은 103%,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압연 강재는 102%, 유색금속(비철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시멘트, 일반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등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발표1)
- 동시에 12개 중요고지의 대상이 아닌 품목 중 전동기는 220%, 변압기는 208%, 베아링은 121%, 전기아연은 140%, 연은 121%, 종이는 113%, 소금은 110%, 화장품은 109%, 판유리는

^{1) 12}대 중요고지 실적에서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인지 당초의 목표 대비 실적, 즉 목표달성률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일 가능 성이 높음.

- 100%, 마그네샤크링카는 104%로 증산했다고 밝힘.
-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3년도 경제 분야의 종합적 성장 규모는 8차 당대회 직전인 2020년에 비해 삼화철은 3.5배, 선철은 2.7배, 압연강재는 1.9배, 공작기계는 5.1배, 시멘트는 1.4배, 질소비료는 1.3배로 중요품목(지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더욱이 국내총생산액은 1.4배로 늘어났다고 밝힘.

○ 김위원장은 식량(알곡) 실적을 최대 성과로 간주

- 그는 "알곡 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한 것을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평가"했다고 밝힘.
- 실제로 12개 중요고지에서 첫 번째가 알곡이었기 때문에 이는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보장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지배적 고지"라는 위상을 가졌음.
- 게다가 "지난해(2022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산생된 심각 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박한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하 면 2023년의 식량 증산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음.

○ 그는 식량에 이어 주택건설 분야를 두 번째 성과로 꼽았음.

- 즉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제일 큰 힘을 넣어온 중대 국사인 인민들의 살림집 건설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룩"되었 다고 평가
- 즉 평양 화성구역에 1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 서포지구의 4,100여 세대 살림집 건설, 지난 4년 동안 검덕지구에 2만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
- 또한 농촌 살림집 건설은 2022년의 두 배 이상인 5만 8,000 여 세대

- 그는 세 번째로 기간공업부문의 성과를 지적
 -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기간 공업 부문이 뚜렷한 생산 증가를 나타냈다고 평가
 - 기계공업 분야에서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기술혁신 사례를 특별히 칭찬, 소개("제2의 천리마정신창조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
 - 금속공업 분야에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에너지절약형 산소 열법 용광로 건설과 1만 5,000㎡/h 산소분리기들의 설치공 사 등을 마무리해 이미 조업에 들어가는 등 2023년을 금속공 업부문이 주체화, 현대화 실현에서 크게 약진한 해로 평가
 - 또한 화학, 전력, 석탄공업 분야에서도 개별 공장· 기업소의 성과와 함께 혹은 그것 없이 해당 공업 전반의 성과를 내세웠으나 금속, 기계 공업 수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닌 듯한 기조 * 12개 중요고지에서 전력, 석탄, 질소비료의 경우, 목표의 100% 달성에 그쳤음.
- 아울러 채취, 건재, 임업, 경공업, 수산업, 철도운수부문의 경우, 해당 산업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산업 이름만 제시하고 6개 산업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언급에 그쳤음.
 - 즉 이들 부문에서는 성과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금속, 기 계 공업 수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닌 듯

2.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평가

(1) 북중무역

- 북중무역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2년에 이어 2023 년에도 빠른 속도로 회복
 - 북중무역총액은 2022년에 10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3.1%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1~11월에는 20억 5,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4.7% 증가
 - 2023년 1~11월에 북한의 대중수출은 1억 9,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2.7% 증가했고, 북한의 대중수입은 17억 9,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6.6% 증가
- 이 기간 동안의 북중무역을 코로나 19위기 직전 해인 2019년 과 비교한다면 2023년 1~11월 북한의 대중수출, 대중수입, 무역총액은 2019년 1~11월에 비해 38.1% 증가, 23.1% 감소, 18.4% 감소를 기록
 - 2023년 1~11월에 북한의 대중수출은 2019년 같은 기간의 138.1% 수준을 기록했고, 북한의 대중수입은 2019년 같은 기간의 76.9% 수준에, 북중무역총액은 81.6% 수준에 달했음.
 - 즉 코로나 19위기 기간인 2020, 2021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22, 2023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수출과는 달리 수입과 무역총액은 아직까지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음.
- 2022년 8월 북한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언 전후해 7월의 해상

화물운송 재개, 9월 이후 북중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 일부 북 중간 화물트럭 운행 재개 소식에도 불구, 북중간 육상운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둥-신의주간 화물트럭 운행은 여전히 중 단 상태

- 게다가 2023년 8월, 국경봉쇄 해제 공식화하면서 중국내 체재 북한 인력 2천명 귀국, 이어 9월말에 외국인 입국 허용, 하지만 관광목적 입국은 불허하는 등 북중간 인적왕래는 아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
- 북한이 아직까지 국경개방과 인적 물적 교류(수입 포함)를 제한/통제/속도조절하고 있을 가능성 ← 원인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외화 부족? 국내정치적 요인?
- 한편 2023년 1~10월중 북한의 대중수입은 중간재와 소비재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대표적인 중간재인 플라스틱 제품(HS 39)의 수입액은 1억 7,205만 달러(전체 수입의 10.8%)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최대치.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수입액의 63% 수준
 - 아울러 제재/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한 가발, 가수염의 원료(HS 6703)(즉 중간재)의 수입액은 1억 2,903만 달러(전체의 8.1%) 또한 큰 폭으로 증가
 - 그리고 의류 생산을 위한 중간재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HS 5407)수입액은 7,035만 달러(전체의 4.4%)로 크게 증가
 - 또한 대표적인 중간재이면서 동시에 최종소비재인 설탕(HS 1701) 은 4,785만 달러로 2019년 수입액(3,294만 달러)을 크게 상회
 - 소비재에서는 쌀(HS 1006)의 수입액이 7,260만 달러(15만 5천 톤, 전체 수입의 5.0%)로 이미 2022년 연간 수입액(3,321만 달

러)을 크게 상회했으며, 밀가루, 옥수수 등의 수입도 크게 증가

3,332 3,500 2,945 2,833 3,000 2.565 2,574 2,539 2,500 **2,**218 1,993 2,000 ,723 1,500 894 1,000 491 260 500 266 215 13 134 5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11

〈그림 1〉대북제재/코로나 이후 북중무역의 연도별 추이

주: 수출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수입은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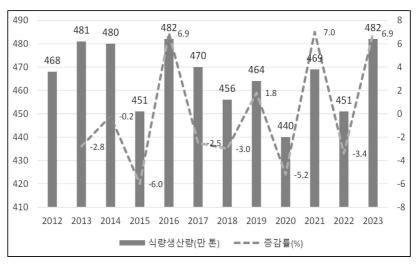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IBK경제연구소

(2) 농업

- 농촌진흥청 추정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총 482만 톤으로 전년의 451만 톤보다 31만 톤(6.9%) 증가했음.
 -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482만 톤)
 과 동일한 수준임.
 - 아울러 대북제재가 본격 실시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그림 2 참조)
 - 물론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기상 조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식량생산 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힘.
 - 다만 기상 조건 이외에도 북한정부가 식량 증산에 정책의 최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폈다는 점, 즉 정부예산에서는 농업 분야 지출 증가(???), 기계공업에서는 농기계 및 부품 생산, 화학공업에서는 비료, 발전부문에서는 농업용 전력에 높은 우 선순위를 두는 등 정책적 노력도 무시못할 요인으로 작용
- 한편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북한 식량 생산 추정결과는 '알곡 목표 103% 달성'이라는 이번 전원회의의 보도, 또 지난해 가을부터 2023년 농사가 '풍작'임을 주장했던 북한의 공식 보도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함.

〈그림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생산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

(3) 산업

- 2023년에 북한의 경공업 부문은 2022년 하반기부터 생산의 미약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앞의 북중무역 동향에서 보았듯이 올 들어 플라스틱 제품, 섬 유, 가발용 재료, 석탕 및 식용유(대두유 및 팜유) 등 경공업 용 중간재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이들 중간재를 사용하는 의류, 식품가공, 생활용품 산업의 가동률이 제한적이나마 상승했을 가능성
- 경공업뿐 아니라 금속, 기계, 화학 등 중화학공업에서도 제한적 이나마 생산의 증가가 있었을 가능성
 - 앞의 북한의 보도 내용에도 나왔듯이 김책제철소의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 건설과 산소분리기의 설치 공사 완료를 비롯해 금속공업 분야의 핵심 설비투자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기계공업에서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대형압축기 제작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화학, 전력, 탄광 분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보도하고 있음.
 - 그런데 중화학공업 분야의 괄목한 성과에 대한 이번 전원회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금속 및 기계설비 공급능력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제재대상 품목인 금속 소재와 기계설비, 기계 부품 등에 대한 비공식적 수입을 어느 정도 단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건설업, 서비스업도 제한적이지만 증가했을 가능성
 - 건설업에서는 살림집 건설 성과
 - 서비스업은 대외무역의 대폭적인 증가, 경공업 생산의 증가,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지역간 이동 증가, 관광법 제정을 계기로 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제한적이지만 생산이 증가했을 가능성

(4) 시장 물가/환율

- 2023년의 북한 시장 물가/환율은 코로나19 위기 기간(2000~ 2022년)보다는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음(그림 3 참조).
 - 2000~2002년에 북한 시장 물가는 중간재/최종소비재 수입 중단에 따른 극심한 공급부족으로 인해 급등하는 등 매우 불 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시장의 달러 환율도 갑작스런 북한 원 화 절상 움직임이 나타났음.
 - 하지만 2022년 8월 코로나 종식 선언 및 국경봉쇄 완화 이후 시장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고, 환율도 종전수준을 회복
 - 시장 쌀값은 북한정부의 사실상의 가격관리 정책 등으로 큰 흐름에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종종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때도 있었으며, 2023년에는 추수가 끝난 10월 중순부터 현재(2023년 12월 말)까지는 예년 수준(kg당 5천원)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대북제재/코로나 이후 평양의 시장 쌀값 및 달러환율 추이

(원/kg, 원/달러)



자료: 데일리NK

(5) 기타

① 북러 경협 확대

-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라, 특히 지난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 담 및 10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군사/경제분 야 협력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
 - 양국이 포탄과 군사기술, 노동력과 식량, 유류 등 서로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진전
- 경제분야에서는 우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식량(밀(가루), 옥 수수)과 원유/정제유를 무상으로 지원할 가능성

- 러시아는 러-우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제재로 수출하지 못한 원유와 밀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전에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밀과 원유를 지원 또는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아울러 북한 근로자들의 러시아 극동 지역 파견 또한 논의되고 일부는 이미 실행되었을 가능성
 - 북한 근로자들의 러시아 파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6-17년부터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상태
 - 러시아로서도 각종 건설현장 등에 인력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데다 이미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어 이 분야는 그 자체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음.

② 북한의 제재회피 행위 및 비공식 무역

-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공식적 거래를 지속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
 -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적인 것이 석탄 밀수출, 어업권의 밀거래 등
- 북한은 또한 중국, 러시아 등과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무역을 제재 이전과 제재 이후에 수행해 왔는데, 코로나로 중단되었다 가 2022년 8월부터 공식 무역 재개와 함께 비공식 무역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코로나 이후 북한의 비공식 무역은 기존의 무역 분권화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고 이른바 '국가 독점 밀수(밀무역)'이라고 해서 국가(중앙의 당정군 기관)가 중앙집권적으로 밀무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전해짐.

③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를 대 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을 탈 취하고 이를 다양한 돈세탁 방법으로 현금화
- 북한의 암호화폐(가상자산) 탈취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매우 어려워
 - 사이버보안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스(Chainalysis)는 북한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2023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약 3.4억 달러를 훔쳤다고 밝혀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체이널리스의 보고서를 인용 해 북한이 2022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17억 달러를 탈취했다 고 보고
 -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2억 달러, 2022년에 6.3~7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
- 그런데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모두 현금화되어, 북한의 수 중에 들어가 것이 아님에 유의
 -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상대적으로 추적/식별이 용이하지만 탈취한 자금의 현금화는 추적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현금화 규모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움.
- 한미 정보당국과 보안업계는 북한의 사이버 절도에 대한 단속/추적을 강화

(6) 종합 평가

- 이상과 같이 2023년도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외무역,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그리고 시장 물가/환율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난 2022년보다 악화된 징후나 정황을 찾기 어려움.
 - 더욱이 제재/코로나(국경봉쇄) 충격이 기본적으로 대외경제의 충격에서 시작했고, 이것이 국내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한 것이라면, 이제는 대외경제 부문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국내경제의 회복을 견인
 - 다만 회복의 속도와 수준, 나아가 지속성의 문제는 남음. 아직은 회복이 빠른 것도 아니고 더욱이 앞에서 보았듯이 북중무역이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도 아님. 아울러 이런 회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지수 상태
 - 게다가 장기간의 제재/코로나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 에서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움.
- 따라서 2023년 북한경제의 성과에 관한 이번 전원회의 보도 내용은 한편으로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수긍과, 또 한편으로는 다소 과장된 보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됨.
 - 예컨대 2023년이 2021년, 2022년보다 경제실적이 좋았고, 12 대 중요고지의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 등은 대체로 보아 인정

- 다만 2023년도 경제 분야의 종합적 성장 규모는 8차 당대회 직전인 2020년에 비해 삼화철은 3.5배 등 중요품목(지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더욱이 국내총생산액은 1.4배로 늘어났다는 주장은 찬찬히 음미해볼 필요
- 우선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 및 국경봉쇄 첫 해로서, 한국 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더욱이 2020년에는 △4.5%로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즉 비교대상 시기의 경제실적이 최근 이십여 년동안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해임.
- 또한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대비 1.4배 늘어나기 위해서는 2021~2023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11.9%를 기록해야함. 이와 관련, ▲이 성장률은 명목 기준인지 실질 기준인지²⁾, ▲GDP라는 것이 생산물의 부가가치의 합인데, 북한은 일부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시키는 수준으로 여러 차례 인상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시장가격과 괴리가 작지 않고, 더욱이여전히 국정가격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 것인지 등의 의문이 제기
- 아울러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김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음.
 - 즉 "다음 해부터 당대회 결정 관철에서 미진되고 있거나 걸림 돌로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 (중략) 계획한 모든 과제들이 빛나는 결실로 전환되게 하여

²⁾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3.12.31.

- 야" 한다고 밝힘.
- 아울러 "다시 말하여 2024년 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가 확보되여 야" 한다고 강조
- 2023년의 실적에 관한 김위원장의 보고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성과가 뚜렷한 산업/분야와 그렇지 못한 산업/분야로 나뉠수 있음.
 - 우선 식량(농업), 건설(살림집), 기계공업, 금속공업은 성과가 뚜렷한 산업/분야
 - 그리고 기간공업 중 화학, 전력, 석탄, 아울러 채취, 건재, 임 업, 경공업, 수산업, 철도운수부문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그다지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산업/분야
- 요컨대 2023년의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부 문별 성과의 편차가 작지 않았음을 짐작 가능
 - 더욱이 12개 중요고지와 기간산업에 중점을 두었고, 더욱이 이른바 사회주의 애국운동, 사회주의 경쟁 등 '대중운동' 방식으로 이들 우선순위 분야의 목표달성을 채근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여타 분야는 성과가 부진하고, 일부에서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 경제난 이전에도 대중운동 방식은 성과와 동시에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음.
- 이와 함께 생산 증대의 과실이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 시되는 부분도 존재

- 식량 생산이 상당히 증가했으면 당연히 협동농장의 결산분배 에서도 농장원들의 분배몫이 증가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국의 여러 농장들이 결산분배 이후 애국미를 바치겠다고 편지를 보내온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당중앙위 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고 제의했음.
- 즉 '자발성'으로 포장을 하면서 애국미 납부를 사실상 강제할 가능성

3. 2024년 북한경제 운영방향: 8기 9차 전원회의 공식매체 보도내용

- 김 위원장은 대중운동에 역점을 둔 2023년의 경제운영을 2024 년에도 지속할 방침임을 천명
 - 그는 2024년에 대해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라고 규정
 - 그는 특히 "가장 간고하고 준엄했던 시련의 고비들을 과감히 돌파한 자신심을 가지고" 2024년에 많은 성과를 낼 것을 주문
- 그는 아울러 2024년에 우선적으로 선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 제는 "국가적인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 고 밝힘.
 - 동시에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조. 특히 "내각이 헌법이 부여한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의 임무에 맞게 국가경제의 명맥을 살리고 목적지향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을 주문

- 동시에 2024년에도 12개 중요고지에 경제운영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간공업에도 힘을 쏟을 것을 주문
 - 그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정 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2024년에도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 강조
 - 또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 공업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업들을 제시
 - 특히 그는 기계공업에 대해 별도로 언급, 기계공업의 모체인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만들고 그 경 험에 토대해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락원기계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할 것을 강하게 주무
- 아울러 그는 건설, 농업, 경공업 분야에 대해서도 2024년의 사 업방향을 제시
 - 수도건설과 농촌살림집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당중앙이 구상하고 있는 웅대한 전망건설계획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에 대해서도 언급
 - 농업에서는 농촌경리의 기계화, 관개체계 완비, 간석지 건설 등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농업생산력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
 - 경공업 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 기초식품의 질 제고를 첫 번째 과업으로 제시

4. 2024년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전망

- 2024년에도 북한경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경기하강 혹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다만 2022, 2023년처럼 장기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 적으로 소폭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변동은 있을 수 있음.
- 올해 한 해 동안의 움직임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 될 가능성
- 첫째, 코로나19 위기 상황
 - 북한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와의 교류 확대에 따른 변종의 유입으로 지난 2022년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둘째, 국경봉쇄 완화 및 북중무역(특히 대중수입) 속도/규모 조 절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
 - 2024년에도 ▲코로나 위기 요인이든, ▲외화부족 요인이든, ▲국내정치적 요인이든 국경봉쇄 완화 및 북중무역(특히 대중수입) 속도/규모 조절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이 2023년과 유사할 것인지, 다소 상이할 것인지 주시할 필요
- 셋째, 대북제재 상황
 -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으로는 대북제재의 추이는 북미협상

- 보다 미중전략적 경쟁 심화, 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북한으로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제재 효과의 완화 및 상쇄, 나아가 제재 무력화에 노력할 가능성
- 넷째, 중국, 러시아의 대북지원 및 북중/북리 교역·경협의 규모
 -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
 - 다만 여기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개양상, 러-우 전쟁, 이 스라엘-하마스 사태 등과 같은 요인이 변수로 작용
 - 2023년에는 북중/북러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의 러시 아 추가 파견, 러-우 점령지역 전후 복구사업 파견, 중국/러 시아 관광객의 북한 방문 재개/본격화 등의 변수가 존재
 - 아울러 향후 북중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 화물운송보다 트럭 화물운송이 본격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둥-신의주간 트럭 운송재개 여부/시점와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여부/시점 을 눈여겨 볼 필요
- 물론 북한 내부의 요인, 예컨대 국내 경제정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2024년의 국내 경제정책은 2023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2024년 북한경제에는 북한 국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요 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경제분야_토론

토론문 2023 북한 정세 평가 및 2024 전망: 경제 부문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I. 2023년 북한 경제 평가

- 1. 북한 매체 발표 내용 및 평가
- □ 2023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 었다는 점 공개
 - 2023년에도 △방역조치 지속 △대북제재 지속 △험악한 안전 환경 대응이라는 여건에 더해 식량난이 당면 과제로 제기되었 음을 공개
 - 기존의 자연재해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안전환경' 문제를 제기하여, 군사·안보부문의 불안이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1)
 - 개성시의 경우 2023년 초 식량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되 지역 단위에서의 식량 수

^{1) &}quot;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습니다." (『노동신문』, 2020.1.1.)

급의 문제가 존재했었다는 점 시사(『노동신문』, 2023.10.29.)

- * 한국의 농촌진흥청 추정에 따르면 2022년도 식량생산량은 451 만 톤으로 2021년 대비 18만 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농촌진흥 청 보도자료, 2022.12.15.)
- 2022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조정을 검토하였으나 3년차 목표를 지속하는 것으 로 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적 선택이 성공적으로 결속되었다고 평가
 - 기존에 설정된 목표의 재조정을 검토할만큼 2022년 말 북한 경제는 난국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는 점 공개
 - 이는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의에서 2022년 경제 부문의 성과와 2023년 경제 부문 과제를 포괄적으로만 공개 한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 2023년 경제 부문의 경우, 그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 였으며 정비보강전략 부문에서의 성과 또한 구체적으로 공개
 - 이번 발표에서 2023년 성과와 함께 2020년과의 비교를 통해 경제발전5개년 계획 수행과 관련하여 중간 평가적 성격 반영
 - 2023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들과 함께 8차 당대회에서 제기 한 정비보강전략 측면에서 이룬 성과 또한 제시
 - 총괄적으로는 경제발전5개년 계획 수행에 있어서 3년차를 경과 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도 "괄목할만 한 성과"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개괄

- 거시적으로는 국내총생산액이 2020년 대비 1.4배 증가하였으며, 중요지표들 중 금속, 화학, 기계, 건재 부문에 속하는 6 개 지표들은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고 발표
- 2023년에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공개하였으며 12개 중요 고지에 포함되지 않은 10개 생산물의 2023년 생산 계획 초과 달성 발표
- 부문별로는 기계,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부문에서 정비보강전 략 수행 성과 제시
 -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 은률광산,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 합기업소 등의 경우 2023년에 정비보강전략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부문별 생산성 향상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반면에 채취, 건재, 림업, 경공업, 수산업, 철도운수부문에서 는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현행생산 및 전망생산 증가를 위한 돌파구 마련 정도로 언급
 - * 산업 내 부문별, 기업별 성과 보도들은 있었으나 산업 차원에서 주목할만한 구체적인 성과들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
 - 정보산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기초 사업을 진척 시켰다는 수준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
 - 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혁명강령, 미래세대정책(교복 및 신발, 가방 무상공급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에서 밀가공공 장 및 교복공장 신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료가공업과 경공업의 생산력 제고 토대 마련

2. 평가

- □ 2023년 북한 경제의 경우 전년 대비 하강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 존재
 - 2020년 이후 거듭된 경제 부진 속에서 2023년은 경제 운영 상의 여건이 다소 호전되어 이에 경제 전 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대외무역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본재 및 중간재, 원료 조달 등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어 관련 공장 가동률 제고에 긍 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2023년의 경우 자연재해 문제가 크지 않았으며, 정책 우선 순위 상향 조정 및 투자 집중, 영농물자 수입 증대, 북한 내 비료 공장들의 현대화 사업 성과, 관개체계 정비 등 농업 생 산성 증대를 위한 토대 구축 사업 성과 등이 작용하여 알곡생 산계획 초과 달성으로 귀결
 - 2021년 이후 정비보강전략으로 추진되었던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북한의 장기 투자 사업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나 2023년 중에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추가 파악 필요
 - 주민생활과 관련된 식량 및 각종 수입소비재 등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 및 하락 추세를 보여 주민들의 생활 상의 타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개성 지역 식량문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 편차는 존재할 가능성 농후

□ 북한의 경제 성과 발표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존재

- 국내총생산액과 관련 추후 검증이 필요한 요인들 존재
 - 2022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 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을 2020년 대비 1.4배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번 발표에 따르 면 2023년에 이를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제 부문별 성과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국내총생산액의 경우 2020년과 비교할 때 기준 가격 적용 시 실질국내총생산액으로 비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23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가격법과 관련 지표별에 가격의 적용과 가격표의 게시 방법 등을 보충 하였다고 밝혔는데, 금번 국내총생산액 추정에 반영하여 추정 한 것인지
- 총량적인 측면에서 목표 대비 성과는 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과가 돌아가고 있는 지는 파악 필요
 - 알곡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매체를 통해 지역별, 농장별 계획달성 수준 및 결산분배 사업을 진행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분배 측면에서도 제도에 맞춰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동시에 애국미 헌납운동을 광범 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김정은 집권 이후 제시한 성과에 따 른 분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 필요
 - 총평에서 지방발전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농촌주택건설사업과 상대적으로

미진한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밝혀, 사업 추 진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한 방증

Ⅱ. 2024년 북한 경제 전망

1. 2024년 북한 경제 운영 방향

- □ 8차 당대회 기조 지속 및 당면과제와 전망과제 제시
 - 2024년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목표들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향후 2년 동안 "미진하거나 걸림돌이로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위한 토대 마 력에 집중할 것임을 제시
 - 최우선 과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강화 장을 요구하여 내각의 역할 강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는 2023년 8월 안석간석지에 발생한 재해 피해에 대해 내각 총리를 포함하여 내각 간부들과 지방의 행정경제간부들의 사 업 수행 상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규율 강화 문제를 직접 거 론한 바 있어 이러한 행태의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
 - 당면과제로 2023년부터 추진한 12개 중요고지 달성과 당의 주 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 2023년에 12개 중요고지로 설정한 주요 사업들이 경제 운영 에서 여전히 중요한 당면 과제들로 제기

- 8차 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설사업, 특히 평양의 건설사업과 농촌주택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제기
- 최근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 및 기초식품의 품질제고 문 제를 직접 거론하였으며 식료가공부문과 관련된 잠업부문에 대해서도 발전필요성 제기
- 정비보강전략으로 기간산업들을 중심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면 기계공업의 경우 주요 공장들의 과제들을 구 체적으로 제시
 - 기간산업 중에서도 기계공업부문의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등 중요기계공장의 현대화 사업을 중점 과제로 제시
 - 농업부분에서 농촌경리의 기계화, 관개체계 완비, 간석지 건설 사업 등 농업 부문의 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 제시
 - 경공업과 지방공업에서의 공장 현대화 사업과 상업, 급양, 편의봉사 부문의 개선 사업들을 제기하여 인민소비품 생산 및유통, 서비스업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과제들은미공개
-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외경제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였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 미공개
 - 2023년 경제 부문 과제에서는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으나 2024년의 경우 대외경제사업 확대발전방향을 명시하였다고 매체를 통해 공개

2. 전망

□ 고려요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2024년에도 북한 경제 운영 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제재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은 높 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의 경제 운영 방향에 상수로 고려 되어 당면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
 -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 발전에 애로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요 인이지만 북한이 이미 제재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최 근 북한이 현실적, 과학적 목표 설정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
 - 다만, 대북제재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경우 북한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은 높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 에 따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중국과 러시아 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최근 북한은 방역 정책을 완화하여 대내외 인적, 물적 교류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방역 사업의 중 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 는 이상 강화되지는 않겠지만 지역, 기업, 농장 단위의 방역 정 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대외 부문에서 인적 교류 및 물자 유출입에 있어서 방역관련 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어 최근년에 경제 활동에서 조성되었 던 장애 요인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대내 부문에서도 방역 정책이 다시 강화되지 않는 이상 농업 및 건설 부문에서의 대규모 노동력 동원사업과 유통 및 서비 스 부문에서의 경제 활동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24년에도 북한의 자연재해 문제는 농업 부문 등에서 성과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2023년의 농업 부문 성과에서 기상 상황이 양호하고 자연재해 문제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식량 생산에 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대응능력 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
 - 북한 또한 모든 기관과 기업 등에서 재해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강력히 실행할 것을 요구
-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북한의 대외경제 발전 및 확대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속도와 규모는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
 -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 2023년에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 교류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며 2024년을 '조중친 선의 해'로 설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무역, 관광 등 경제부 문에서의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화되는 계기가 어느 시점에 마련될 지는 추후 관찰 필요
 - 러시아와의 관계와 관련, 2023년 정상회담 및 후속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실질적 인 무역 규모의 확대 수준이나 대북제재와 저촉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 등의 문제는 국제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24년 북한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경제 부문에 역량을 집 중한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속에서 최근 급격히 위 축되었던 대외경제 부문의 확대, 발전 수준이 경제 성과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사회

발표

2023 북한사회변화와 2024 변화전망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이형종(걍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회분야_발표

2023 북한사회변화와 2024 변화전망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 들어가며

- 통일은 헌법상 절대 명제이지만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로 약화되고 있음.
 - 70년이 넘는 분단체제에 익숙해진 영향이기도 하고 2018년 북·미 간 '하노이 결렬'과 핵개발을 비롯한 반복적인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시민들이 지친 결과
- 북한에 대한 판단이나 통일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는 점은 중요한 까닭에 북한 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남한사회의 접근 방법에는 문제가 있음.
 - 당위론적이고 윤리적 판단이 북한 인식에 앞서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정치체제나 이념체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북한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
 - 핵문제라는 현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나 장기적인 차원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입안과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
 - 따라서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변동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

- 지금까지 다양한 북한 사회문화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종합적 인 이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는 관련 연구자의 양적 부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 며, 동시에 북한 사회나 북한 주민에 접촉이 근본적으로 어렵 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쳤음.
-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 사회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감하여 북한 현실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어려워지고 있음.
 - 국내 입국 탈북자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인원이 감소 추세인 바,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통제 등의 영향으로 입국인원이 감소: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입국
-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간물이나 일부 북한과의 간접적인 소통구조를 갖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북한사회문화 현실을 분석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북한 사회문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북한 공간물들은 관련 정책을 알아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선전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부정적인 측면은 배 제되는 경향
 - 북한을 주로 다루는 외부 매체들의 경우는 이념적 편향성으로 북한의 사회의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향

□ 김정은 시기 북한 사회문화의 변화 과정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 워드가 필요함.
 - 첫째, 북한은 유일지배체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로 집 단주의와 이념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산업 국가를 이룩하였지만 동시에 김일성에서 김정은에 이르는 절대수령 중심의 유일지배 체제를 완성하여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것
 - 둘째, 한국전쟁과 분단체제로 미국 및 한국과 전쟁을 치루면서 형성된 북한체제는 앞의 유일지배체제와 결합하여 '유격대'식 의 군사국가화되었고, 이를 명분으로 강력한 사회통제를 유지
 - 셋째, '고난의 행군'으로 1990년대 다수의 아사자를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계획 중심의 사회주의 양식의 북한 경제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주민 들을 생존을 위하여 시장을 발전시켰고, 2000년대는 시장이 삶의 기본
-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마주한 북한 사회문화체제는 유일지배체 제가 지속되면서도 고난의 행군 경험으로 국가에 대한 인민들 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과 시장화의 결과로 이념보다 물 질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음.
 -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기존의 권력구조 를 유지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은 그 이전과 다른 사회문화 전략이 필요
- 김정은 시대의 사회문화 전략이 정리된 것이 2016년 36년만에

- 개최된 「조선로동당 7차대회」로 사업보고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며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 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 문명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체계, 교육내용 방법의 개선', '사회주의 보건사업 발전', '체육강국 건설로 국제적 체육신화 창조'
- 문화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 를 요구하면서,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도덕 기강 확립"할 것을 강조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는 전략은 부분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음.
 - 첫째, 현실 변화의 수용으로 교육부분의 도농격차를 지적하거 나 영화부분의 침체를 적시하고 있듯이 문제 있는 현실을 인정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제시: 외부문화의 유입과 주민들의 문화적 취향변화라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
 - 둘째, 세계적 수준 혹은 보편적 수준의 지향으로 유일지배체 제의 유지가 상징하는 북한적 특수성을 바탕에 두고 있으나 교육, 문화, 의료, 체육 부분에서 보편적 수준을 지향: '김정은식 세계화'
 - 셋째, 과학기술 증진과 분야별 발전을 결합으로 '원격교육'이

나 '먼거리 치료' 등이 이를 대변: 체육과학기술 발전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시

-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은 수용적인 정책만을 입안한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사회통제도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강화하였음.
 - 2021년의 '청년교양보장법', 2022년의 '반동문화배격법',
 2023년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제정
 -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은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자 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 상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철저히 보 장해야 한다."라고 명시
 - 민족문화의 보존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평양문화어법이나
 -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은 목적으로 하는 반동 문화배격법
-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화전략에 따라 대내외적인 선전 방식의 변화가 적지 않았는데 핵심적인 선전선동 수단인 문화 예술의 변화가 두드러짐.
 - 전통적인 핵심 장르였던 영화는 퇴조하면서 음악이나 공연이 중심을 이루면서 걸그룹 콘셉트를 차용한 '모란봉전자악단 (2012)'과 '청봉악단(2015)'이 메인악단
 - 2019년부터 김일성광장에서 새로운 야외콘서트 형식의 대규 모로 개최된 설맞이 축하공연을 진행하면서 카운트다운, 축포

- 행사, 캐릭터 풍선, 드론 등 새로운 무대구성과 다양한 요소들로 국제사회의 대규모 공연장의 이미지를 연출
- 2020년 시작된 조명축전은 평양 제1백화점 건물 벽면을 활용해 북한 내 주요 기관 및 문화·관광시설 등을 레이저 빔 기술로 표현하는 미디어파사드 공연 형식을 채택
- 2023년 '신년 대경축공연'에서는 대형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도입하여 '국기'를 강조
- 공연 예술 뿐 아니라 핵심적인 선전매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분야의 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방송 시행과 더불어 화면 비율도 16대 9로 바꾸면서 진행자도 젊은 남녀로 교체되었고, 속보나 현장감을 부각시키 는 방송 연출을 사용하거나 콤퓨터그래픽(CG)을 활용하는 등 국제사회의 방송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기법, 편집 방 식 등을 활용
 -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포함한 정치선전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지만, 유럽축구 중계를 포함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편성 비 율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 및 소련 영화를 포함한 오락성이 높은 프로그램 비율도 확대1)
 - 북한 방송의 변화는 LCD TV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를 포함한 정보화 진전도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외부 문화를 경험한 북한인민의 문화적 취향 변화를 반영
- 김정은 시대의 사회문화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대외 선전의 강화임.

¹⁾ 이주철, "김정은 시대 북한 방송언론의 변화: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 회보』, 18(2), (2014), pp. 203-232.

- 유투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텔레그램 등 국제사회의 트렌디 한 플랫폼 및 콘텐츠 양식을 차용
- 다양한 브이로그를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자연스런 일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대외선전선동 방식을 시도
- 사회적 차원에서 김정은 시대 변화의 핵심 배경은 시장화 진전 으로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300개로 시작한 종합시장이 490 여개로 늘어났고 시장은 주민 생존과 분리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음.
- 시장화의 결과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사회적 불평등 이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
- 일종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활성화와 장사활동의 증가과정에서 돈을 번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빈민층도 늘어나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계층 갈등으로 이어짐.
 - 중산층에서 성장한 시장 상인이 120만 명을 넘어서고 신흥자본 가인 '돈주'도 10만 명으로 증가하여 기존 상류층과 이익 갈등2)
 - 계층적으로 뿐 아니라 지역적 불평등도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평양과 이외 지역 간 지역격차 외에도 중국과 교역이가능한 접경 도시 신의주나 혜산 그리고 무산이나 회령 지역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지만 이외 지역은 열약한 현실

²⁾ 김병로,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변동,"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문화변동』, (서울: 한 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pp. 5-12.

-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과 합작으로 이동통신 회사 '고려링크'가 출범하여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0년 500만 명으로 늘어난 휴대전화도 북한 사회변화의 중 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휴대전화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사업도구 임은 물론 지리적 이동이 철저히 통제된 북한에서 주민유동 성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 스마트폰의 보급도 확대되어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음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 은 다양한 게임 앱을 즐기고 있으며, 최근 북한 소설에서는 젊은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현실이 묘사될 정도
- '한류'를 포함한 외부문화의 유입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주민 중 남한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자주 접하고 있는 비율이 40%에 이르고, 남한 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65~70%로 나타날 정도
 - 외부문화의 유입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자극하고 있는 바, 202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결속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기존 체제에 대한 지지도나 통합정도는 전반적으로 약화3)
- 북한 정권의 각종 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외부문화의 유입도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범죄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음.
 - 자본주의 문화를 유입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포함하여 비사

³⁾ 김학재 외, 『북한사회변동 2020』, (서울: 2021).

회주의적 행동이라고 하는 절도범죄, 청소년 범죄, 성범죄, 폭력 범죄, 살인 범죄, 마약범죄가 증가4)

□ 2023년의 북한 사회문화

- 2018년 처음으로 수령 칭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고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결속도 심화시키고 있음.
 - 김 위원장에 대한 수령 호칭은 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해 2020년(4회)부터 본격적으로 쓰였고, 2021년(16회)에 급증, 2022년에는 23회 사용됐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도 사용 횟수를 초월5)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인민적 수령'으로 추대되고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체택
- 2023년도 북한 정권의 정책기조는 2022년 10월 17일 당중앙 간부학교에서 한 기념강의에서 제시된 '5대건설방향'에 바탕을 두고 있음.
 - ① 정치건설: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 ② 조직건설: 당 대열 정예화
 - ③ 사상건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
 - ④ 규률건설: 전당적인 자각적인 규률준수기풍과 규률감독체계,

⁴⁾ 김윤영·박수양, "김정은 시대 범죄 유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46.1 (2021): 50-89.

⁵⁾ https://www.voakorea.com/a/7251189.html (2024.01.05. 검색).

규률적용체계 확립

- ⑤ 작풍건설: 인민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과 태도 정립
- 2023년 북한 사회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김정은 집권 이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표현되는 친인민 정책과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우 리국가제일주의'로 표현되는 국가주의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음.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정식화하였는데 이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라고 규정
 - 2017년 처음으로 제시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경제발전, 인 민생활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한 '발전'의 이데올로기이 자 담론으로 제시된 것
- 인민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정치적 슬로건인데 인민대중제 일주의를 통하여 김정은은 경제적으로는 북한 인민들의 생활 여 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인민들의 직접적 인 정치적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고난의 행군을 지나 시장화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
 - 시장화 이후 국가로부터 유리되기 시작한 인민들의 지지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6

⁶⁾ 김정일은 권력 장악과정에서 3대혁명소조를 중심으로 조직차원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시장화 이후 사회변화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조직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화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며 집권자가 직접 인민들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

- 인민제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김정은의 현지지도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북한 인민들과 스킨쉽을 일상화하고 있으며, 학 용품이나 화장품 그리고 '살림집'등 인민들의 일상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경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신입생들에게 안겨줄 교 복과 가방, 신발생산을 위한 긴장한 투쟁을 벌였으며 각지 인 민들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입생들 에게 교복과 가방, 신발 등 학용품 공급은 선전7)
 -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화장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여러 차 례 화장품공장을 현지 지도⁸⁾
 - 농장마을의 '새집들이'들이 다양하게 진행》
 -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이라는 주제로 8월 3일~ 7일까지 평양지하상점에서 열린 전시회에 전국의 2,000여 단위에서 자기 지방의 원료 등으로 만든 8,370여 종에 30만여점의 제품이 출품10)

해졌다고 볼 수 있음. 제한적으로 복수후보를 인정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제도 의 변화도 이러한 경향성을 대변

⁷⁾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46 (2024.0 1.05. 검색). 8월에는 남포시에 학생교복공장, 10월 청진학생교복공장을 준공하는 등 관련 생산시절도 확충. 동국대북한학연구소, 「북한사회브리프」, 44호(2023.9); 4 6호 (2023.11). 12월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도 학생 필수용품 공급 별도 의정 상정하고 △올해 학생 교복·가방·신발 공급 사업 집행 평가 △내년 학생 필수용품 생산에 혁신 방안 등 제시. 통일부,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9차 전원회의 참고자료」(2023.12).

⁸⁾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nort hkorea&id=&board seg=427958 (2024.01.05. 검색).

⁹⁾ 북한 주택 관련 내용은 동국대북한학연구소, 「북한사회브리프」참조.

¹⁰⁾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88 (2024.01. 05. 검색).

- 국가를 강조하는 것은 이전 시기 민족 중심의 이념지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종의 국가 중심 '발전론'으로 체제의 목표를 전환하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통합의 기저가 관념적인 민 족발전이 아니라 실질적 국가발전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함.11)
 - 발전론은 실용주의적 특성을 내포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과정에서 다 양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를 '국풍(國風)'으로 말하고 있음.
 - 국가 상징으로서 국기(國旗) 계양식을 전 사회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국가(國歌)를 부르는 등의 의례 강화¹²⁾
 - 개인주택에도 국기 계양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기를 형상화된 옷을 입고 다니는 풍조도 형성¹³⁾
- 11년만에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족과 여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
 - 북한은 1961년 11월 제1차 어머니대회를 시작으로 1998년 (2차), 2005년(3차), 2012년(4차) 개최
 - "자식들을 조국의 기둥감들로 훌륭히 내세우고 국력 강화와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 발전에 공헌한 어머니들", "모성 영 웅들을 비롯해 아이들을 많이 낳아 키운 어머니들", "부모 없

^{11) &}quot;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살고있다는 끝없는 환희에 넘쳐 국가발 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2.11.29.

¹²⁾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76 (2024. 01.05. 검색).

^{13) 「}조선신보」(2023.07.05.). 북한에서는 국가적인 명절과 주요기념일에 각지에서 국기 계양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일기조건이 불리한 날을 제외하고 수업을 하는 기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국기계양식 개최 「로동신문」(2022.11.9.).

- 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돌봐준 여성들"이 참가하였 다고 보도14)
- "자식 잘 키우기가 혁명사업"이라고 하는 등 인구부족에서 비롯 된 노동력 결핍과 군인 부족 문제로 출산을 강조하는 경향¹⁵⁾
- 소년을 포함한 청년세대에 관심도 지속되었음.
 - 2022년 12월에 5년만에 9차 소년단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 년 6월 6일 조선소년단 창립 77독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 청년 조직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에 아래 단위인 조선소년단(소년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는 지시¹⁶⁾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2016~2021)에서 '사회주의애국 청년동맹'(2021~현재) 순으로 단체명을 바꾸면서 국가주의와 청년세대를 결합시켰으며, 2023년 9월에는 청년동맹을 혁명 화 월간으로 정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오염을 경계하 면서 사상무장을 강조17)
 - 2016년 제작되어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미풍선구자'로 선정된 18세 처녀 어머니 강정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 '우리집이야기'의 경우 청년세대와 양육문제를 결합시킨 내용
- 2023년도 12월에 개최된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에 따르면

^{14) 「}로동신문」(2023.12.3.).

¹⁵⁾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11월 발표한 '2023 아시아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집계. 남한보다 높지 만 인구유지를 위한 2.1명보다 아래임.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36 (2024.01.05. 검색).

¹⁶⁾ https://www.dailynk.com/20230112-2/ (2024.01.05. 검색).

¹⁷⁾ https://www.dailynk.com/20230919-4/ (2024.01.05. 검색).

- 사회문화 부문의 평가는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음.
- 과학 부문에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우주과학기술 분 야에서 자부할 만한 성과
- 교육 부문에서 혁신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부각 하면서 교육연구원 개설과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개건, 본보기 학교와 유치원을 확충하고 육아정책 집행이 추진되어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실행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
- 보건 부문에서는 표준약국들을 건설하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 과 치료 예방을 위한 제약·의료품 공장, 질병예방 전문시설이 신설되어 인민생활 안정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주장
- 체육 부문에서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서 국위를 선양했으며, 문화 부문에서는 소년단야영소, 야외극장 등에서 생활 상 편의를 보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¹⁸⁾
-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되면서 북한인 민들의 요구나 취향변화를 수용하였지만 통제가 강화되면서 주 민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음.
 - 앞에서 이야기한 '청년교양보장법', '반동문화배격법', '평양 문화어보호법'이 법적 통제 강화의 상징
 - 새로운 통제법령은 처벌 수준이 높아서 '괴리말투' 즉 한국 말투를 쓴 사람은 6년 이상 사형이 가능할 정도로 처벌 수위 도 대단히 높은 수준
 -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운동선수 20명이 남한 말을 쓰다가 노 동교화형에 처해짐

¹⁸⁾ 통일연구원, 「북한의제8기제9차 당전원회의분석과 함의」(2023.12).

- 북한 당국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집중 검열에 나서며 하드 디스크. 즉 보조기억장치까지 확인
- 탈북자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가족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아이들이 남한 영화나 말투를 따라하면 부모도 처벌
- 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범죄행위를 무마하는 경우도 확산¹⁹⁾

□ 2024년 사회문화 변화 전망

- 권력이 세습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적 대적인 대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외적 변화는 눈에 띠지 않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을 겪고 시장 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사회·문화체제는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 어지고 있음.
- 북한 당국은 대내외적 변화에 나름대로 대응하면서 유일지배체 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제적인 제재 상황과 코로나 19 상황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회 구조적 변화의 압력은 점차 축적되고 있음.
 - 시장화의 확산은 과거의 계획경제로 회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여기서 비롯된 '장마당 세대'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계층적·지역적 불평등의 확대는 체제 전반의 변화를 유인

¹⁹⁾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societysp-06292023065000. html (2023.12.30. 검색).

- 다양한 통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술적 진보로 외부문 화 유입의 원천적인 봉쇄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시장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물리적 사회이동을 자극하고 정보 전달의 활성화를 동반
- 한류를 포함한 세련된 외부문화를 경험한 북한 사람들이 기존 방식의 선전선동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어려움.
-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보통 주민들의 입장에선 체제에 대한 불만 혹은 반항은 현 단계에서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령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에 대한 통합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큼.
- 북한 체제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북한사회문화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를 억제하는 요인들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유일지배체제를 핵심으로 한 정치구조가 여전히 강력: 북한이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본다면 수령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집단 수준에서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까닭에 강력한 기득권 집단이 반세기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도전 세력은 부재

물리적인 사회통제 기제들도 여전히 작동

-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북한 당국이 나름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 적인 대내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임.
 - 국가 전체적인 통제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구루빠'라고 하는 중앙이 직접 관할하는 통제 조직을 활성화한다던지, 문

화적 취향 변화에 맞추어서 과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 의 대중문화까지 차용하는 새로운 선전 전략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

- 외부문화 유입에 대응하여 각종 법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변화에 대응하는 당국의 정책
- 이념적인 차원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이지만, 민족중시에서 국가주의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강조점이 변화
- 북한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없어 지는 것은 과거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최근 북한에 서는 인민대중을 앞세우면서 김정은'식'북한을 지향
- 마지막으로는 분단체제를 포함한 국제환경도 중요: 남북관계는 수차례의 걸친 화해국면이 존재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적대적 대결구조가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고, 미·중관계를 포함한한 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조는 내부 통제를 강화시키는 명분을 제공
- 북한 체제를 변화하려는 구조적 요인들과 동시에 이를 저지하려는 요인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과정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도 단기간으로는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돈주'로 말해지는 시장으로 성장한 새로운 자본가 계층도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기 보다는 기득권층과 결탁
 - 정보유통의 매체인 핸드폰은 기술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기능할 수 있다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된 경제·사회·문화 체제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북한 당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유일지배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와의 균열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간극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 상할 수 있음.
 - 시장의 확대는 새로운 인민의 양을 확대할 것이고 이들의 경제 사회적 불만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
- 현재는 북한식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북한의 유일지배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임.
 - 경제사회적 변화와 북한 인민들의 변화가 정치체제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은 내부적 변화 못지않게 외부환경의 변화도 영향 을 미칠 것

사회분야_토론

토론문 2023년도 북한 사회문화 분야 평가와 2024년 전망

이형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Ⅰ.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사회문화 부문 평가

- □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과학, 교육, 보건, 체육 영역의 성과를 호평
 - 2023년 과학 부문의 핵심 성과는 우주과학기술 분야였다고 평가
 -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당의 목표와 의도에 맞게 노력하여 실 패를 극복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격려
 -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것이 과학 부문의 가장 중요한 성 과였다고 강조
 - 우주과학기술의 성과는 당과 혁명의 요구에 따라 국력을 높 인 것이라 평가
 - 2023년 교육 부문은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혁신적인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
 -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질적변화가 있 었다고 주장

- 교육연구원 신설,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리뉴얼, 160여 개 학교와 유치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신설·개건된 사실을 제시
-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확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
- 육아정책집행이 추진되어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실행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
- 2023년 보건 부문은 인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 경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에 중요한 제약 공장과 의료품 공장, 질병예방 전문시설이 신설
 -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어 인민생활 안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
- 2023년 체육 부문에서 국위가 선양되었다고 평가
 -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쟁취하고 세계기 록을 갱신하였다고 강조
 - 체육 부문에서의 성취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인민들에게 큰 용기와 고무를 부여하였다는 의의
- □ 그 밖의 내용으로 학생들의 필수용품 무상지급, 인민·청년의 시상정 신상태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
 - 2023년 지역 인민들의 생활편의 시설이 증가하였다고 평가
 - 과학기술도서관과 학생 교복공장, 표준약국, 소년단야영소,

- 극장, 전염병예방원 등을 신설하여 지역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 각 지방들에서 자랑할 만한 창조물들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주장
- 2023년 인민·청년의 사상정신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고 평가
 - 혁명적 열의와 투쟁기세가 대단히 앙양되고 모든 부문이 활 기를 띤다고 주장
 - 8차 당대회 이후 주민들이 단합한 결과라고 자평
 - 애국미 헌납운동, 함선 헌납운동과 같은 사회주의 애국운동과 혁명적 대중동원을 사상정신 상태가 강화된 근거로 제시
- □ 24년도 투쟁 방향으로, 과학기술 발전, 교육부문 개선, 보건 부문 개선, 문학예술/출판보도 부문 발전,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 시책 집행 개선을 주문
 -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과학연구 역략을 집중할 것을 주문
 - 과학기술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하다고 강조
 -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계획을 목적 지향적으로 설정하고, 과학 역량을 집중하여 집행하는 체계를 수립
 -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적으로 통일적으로 주관할 필요에 대해 언급
 -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체화/다양화/실용화할 것을 주문
 - 전공관련 과목들의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을 받아

들이는 등,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구체화/다양화/실용화한 다고 강조

- 당정책 실현을 교육 부문 발전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
-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 시킬 것을 주문
 - 인민주권 기관들과 검찰, 사회 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의 정책적 과업과 근로단체 사업을 추진
-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것 을 주문
 -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공급할 것에 대한 결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2023년 교복과 가방, 신발의 생산과 공급 실태를 분석
 -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된 정책이자 국가적 책임이라고 강조
 - 학생소년들에게 교육을 위한 공급은 국가의 미래 인력을 양성하는 정치적 사업이므로,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가질 것을 주문

Ⅱ. 2023년 평가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의

- □ 지속적인 핵전력 증강과 지역 불균등 발전 문제가 핵심
 - 우주과학기술의 강조는 여전히 인민생활 향상보다 군사력 증강

- 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을 의미
- 우주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은 정밀공업의 발전과 생산공업으로 연계될 때, 내수 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보탬이될 수 있음.
- 그러나 자원배분에 있어 민생부문에 비해 무기개발에 불균등 하게 배분되고 있어, 군수공업의 소비재 생산을 위한 전환은 쉽지 않음
- 과학기술부문 중시는 사실상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교육, 보건, 체육 부문의 성과를 인민생활 향 상으로 미화
- 교육과 보건 부문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8차 당대회 관철 을 위한 지속적인 독려 차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
 - 군사부문이나 경제부문에 비해, 교육 및 보건 부문에서의 성과 내용은 약소한 수준이며, 질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미흡함
 -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미지수
 - 사실 교육 부문의 개선과 혁신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었던 것이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유학생을 파견하기 어려운 최근의 현실은 북한으로서는 더욱 부담일 것.
- 강국건설을 위해 건전한 정신과 육체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체육 을 강조
 - 김정은 정권은 각종 체육시설을 신설하며 도대항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중 체육활동을 활성화해 왔음

- 국제경기에서의 체육 부문 성과는 분명 국위선양 등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체육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기도 함
- 계속되는 노력동원에 대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체육 부문에 서의 성과와 대중 체육활동의 독려를 통해 체제결속과 민심 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체육을 건강증진과 여가로서 강조함으로써 음성적으로 확산 되는 비법행위를, 국가가 제시하는 '건전한' 활동으로 대체하 려는 시도
- 인간이 불만과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대표적 활동이 스포츠라는 점에서, 여가로서 체육활동을 늘리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
- 농촌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지역 인민들의 생활편의 시설이 개선 되었다는 평가는 지역간 불균등 발전과 도농 격차 심화를 방증
 - 최근 라선시 학생교복공장(2023.11.10.)과 남포시 학생교복 공장(11.19)이 준공되는 등, 각도에 교복을 전문으로 생산하 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당의 방침과정책에 따라 학생교복 공장이 신설되고 있음. 즉 몇몇 공장에서 교복을 생산하여 전 국으로 유통·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물 량만 생산하는 공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신설된 지역은 이전까지 교복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평양과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와 생필품의 배급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미 소득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

는 현실에서 지방과 촌락의 주민들에게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그에 따라 공장과 학교, 유치원이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각 지방들에서 자랑할 만한 창조물들이 증가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만족할 만한 편의시설과 기관이 부족했음을 나타냄.

□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는 민심을 달래고 내부적 불안요소를 외부로 전가하려는 기조가 강하게 반영

- 최근 전원회의와 비교하여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문화 분야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1.12.27~31)에서 과학기술 배양, 지방의 교원역량 강화, 의료부문 질적 제고를 강조하였으며, 당시 COVID-19에 대응하는 비상방역체계가 가장 중차대한 문제였음. 또한 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벌릴 것을 주문하며 법제도 정비 강화가 제시되었음.
 - 제8기 제6차 전원회의(22.12.26~31)에서 과학기술 중시, 교육과 보건 부문의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비상방역전에서 승리하였음을 자평하였음.
 - 이번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3.12.26~30)에서 체육 부분이 강조되었으며, 전염병 관련 방역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음.
 -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반·비사회주의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시킬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사상의식 측면에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임.

- 인민·청년의 사상정신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호평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
- 첫째, 군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의 노력 동원을 치하하고. 더욱 결속시켜 동원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
 - 주민들은 월급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다양한 부업활동을 하는데, 노력동원은 부업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불만으로 경험됨.

건설부문에서는 화성구역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또다시 일떠세워 이제 오는 태양절에 수도시민들을 입사시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청년건설자들은 서포지구의 4,100여세대 살림집건설을 과감히 내밀어 전위거리라는 새로운 청춘기념비를 떠올리였다. / 인민군대는 수도의 살림집건설뿐 아니라 지난 4년동안 검덕지구에 2만여세대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새산악협곡도시의 장관을 이루어냈으며 강동온실농장건설도 2024년 2월명절까지 완벽하게 결속될수 있게 하였다. / 농촌살림집건설계획은 2022년의 두배이상인 5만 8,000여세대로서 40여개의 시,군들에서는 이미 건설을 끝내였으며 다른 시, 군들에서도 새년도 봄철까지 계획된 살림집건설을 전반적으로 완공하게 된다.

- 둘째, 8차 당대회 이후 다양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엄 중히 단속·통제되어, 실제로 사상정신 상태가 안정되었을 가능성
 - 군중신고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 어보호법 등 법·제도 정비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청년들의

- 사상정신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호평할 가능성
- 법적 통제와 처벌기준의 명시 등을 통해 비사회주의 행태가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 위축되었을 가능성
- 노력 동원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청년층의 불만과 피로감을 독려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 의도나 배경이 어떠하든, 최근 법제도 정비 이후 인민·청년의 사상정신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논리로 구성될 때, 향후 주민 에 대한 사상·일상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체제 내부의 문제를 적시하지 않고,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내부의 불안정성 심화를 방증
 -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었던 주민과 청년층의 비사회주의 행태의 확산 문제까지 거론되지 않은 채, 오히려 긍정적으로 독려하는 정서성이 뚜렷
 - 8차 당대회의 지속적인 목표관철을 위해, 일군과 주민들이 소 진되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독려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나, 식량문제, 경제부문의 성과 등 전반적으로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양상이 확연
 -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데 비해, 대남, 대미 적대적 태도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 사회 내부의 문제와 폐단을 드러내기보다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는 전략일 가능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북한연구 시리즈

1.	북한평론	박재규 저	1975
	북한외교론	고병철 외 공저	1977
3.	북한무역론	공산권경제연구실 편	1979
4.	The Politics of North Korea	Jae Kyu Park et., eds.	1979
5.	북한군사정책론	박웅서 외 공저	1983
6.	북한정치론	박재규 저	1984
7.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 편	1986
8.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Jae Kyu Park et al., eds.	1987
9.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고현욱 외 공저	1987
10.	북한의 법과 법이론	최종고 외 공저	1988
11.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정상훈 외 공저	1990
12.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양재인 외 공저	1990
13.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김일평 외 공저	1991
14.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건설	고병철 외 공저	1992
15.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최청호 외 공저	1993
16.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황의각 외 공저	1995
17.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l External Relations	
		Jae Kyu Park ed.	1999
18.	인터넷과 북한	연구소 외 공편	2000
19.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함택영 외 공제 :	2000
20.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서대숙 외 공저	2002
21.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	2004
22.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Byung Chul Koh ed.	2005
23.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	2006
24.	북한의 노동	양문수 외 공제 :	2007
25.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	
26.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윤대규 편 :	2008
2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윤대규 편 :	2008
28.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윤대규 편 :	2008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윤대규 편 :	2008
30.	The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 An Institutionalist Perspect	tive Phillip H. Park ed.	2009
31.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윤대규 편 :	2010
32.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윤대규 편	
33.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이수훈 편	
34.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이수훈 편 :	2010

35.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이수훈 편 2011
36.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이수훈 편 2011
37.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	이수훈 편 2012
38.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이수훈 편 2012
39. Nuclear North Korea: Regional Dynamics, Failed Policies, and Ideas for E	nding a Global Stalemate
	Su Hoon Lee ed. 2012
40.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편 2012
41.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수훈 편 2014
42.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윤대규 편 2015
43.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연구소 편 2015
44. 글로벌 거버년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윤대규 편 2016
45. 글로벌 거버년스와 북한의 법제도	윤대규 편 2016
46.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7.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8. Rebuilding North Korea's Economy: Politics and Policy	Phillip H. Park 2016
49.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	임을출 저 2016
50. 북핵, 오늘과 내일	연구소 편 2016
51. North Korean Tourism: Plans, Propaganda, People, Peace	Dean J. Ouellette 2017
52.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신석호 외 공저 2018
53.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이관세 저 2019
54.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북대북한연구회 편 2019
55.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이관세 저 2020
56.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소 편 2020
57.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박서화 저 2021
58.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	연구소 편 2021
59.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박서화 저 2021
60.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임 을 출 저 2021
61.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최영준 저 2022
62. 북한 사회주의심리학의 이해	이형종 저 2022
63.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이병철 저 2023
64. 트럼프-김정은 친서를 통해 본 북미회담의 A to Z	이정철 저 2023
65. 신진연구자가 본 김정은 체제	강혜석 외 공저 2023
66. 북한법질서에서의 법치 개념	박서화 저 2023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1. 동아세아의 평화와 안보	박재규 편 1974
	. Brzezinski 저 / 박재규 역 1974
3. 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 From Confrontation to Accommodation	Jae Kyu Park et al., eds. 1975
4.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박재규 편 1979
5.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ae Kyu Park ed. 1979
, ,	•

(6.80년대의 미소관계	L. Caldwell et al. / 소련연구실 역 1981
7. 판례중심 국제법	김정건 편 1982
8. U.S-Korean Relations, 1882-1982	Tae-Hwan Kwak et al., eds. 1982
9.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Jae Kyu Park et al., eds. 1983
10. Korea and Indonesia in the Year 2000	Jae Kyu Park et al., eds. 1984
11. SDI와 아시아의 안보	박재규 외 공저 1987
12.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Jae Kyu Park et al., eds. 1987
13. 한국과 미국 1: 정치·안보관계	안병준 편 1988
14. 한국과 미국 2: 경제관계	김덕중 편 1988
15. 한국과 미국 3: 사회·문화관계	임희섭 편 1988
16. 한·미관계의 재조명	김덕중 외 공편 1988
17. Alliance Under Tensi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U.S.	Relations Manwoo Lee et al. 1988
18.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Ronald D. MacLaurin et al. 1989
19.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쿠친스키 외 공편 1990
20.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 Korean-American Di	ialogue Manwoo Lee ed. 1993
21. The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r	nsula Manwoo Lee et al., eds. 1993
22. Culture & Development in a New Era and in a Transforming	g World Manwoo Lee et al., eds. 1994
23. 위기의 세계와 한국	연구소 편 1994
24. The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Tae-Hwan Kwak et al., eds. 1996
25.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d the 21st Century
	Tae-Hwan Kwak ed. 1997
26.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Tae-Hwan Kwak et al., eds. 1997
27.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서대숙 편 2001
28.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이수훈 편 2009
29. 핵의 국제정치	이수훈 편 2012
30. Northeast Asia's Nuclear Challenges	Su Hoon Lee ed. 2013
31. 동북아 新권력체제와 한반도 정책	이수훈 편 2013
32. South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Lakhvinder Singh ed. 2014
33.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연구소 편 2015
34.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연구소 편 2016
35. 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6. 미중 전략적 경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7. 북중관계: 1945-2020	이상만 외 저 2021
38.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길윤형, 김용민, 조진구 저 2022
통일연구 시리즈	
3221 11	
1.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Tae-Hwan Kwak et al., eds. 1983

2.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ae-Hwan Kwak et al., eds. 1984

김한교 외 공저 1986

구영록 외 공저 1986

3.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4.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 5.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양성철 편 1989
6.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외 공저 1991
7.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함택영 외 공저 1992
8.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연구소 편 1996
9.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연구소 편 1996
10. The Four Powers and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Tae-Hwan Kwak ed. 1997
11.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곽태환 외 공저 1997
12.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곽태환 외 공저 1997
13.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Byung Chul Koh ed. 2002
1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연구소 편 2004
14. 급급급증 연간 및 예약성간 15. <i>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i>	
	Yong-Sup Han 2005
16.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ian Daggarah Craum ad 2010
	ion Research Group ed. 2010
17.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이수훈 외 공편 2012
18. 민주화·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이수훈 외 공편 2014
19.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16
20.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연구소 편 2016
21. 분단 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연구소 편 2016
22.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21
한국연구 시리즈	
1.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김호진 외 공저 1989
2.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Dae-Kyu Yoon 1990
3.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손호철 외 공저 1991
4. 인민당연구	심지연 저 1991
5. 한국정치·사회의 새 흐름	연구소 편 1993
6.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Dae-Kyu Yoon 2010
지역연구 시리즈	
1 44E1 44E	
 1. 연방주의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무한한 다양성 Valerie	e Earle ed. / 박재규 역 1974
2. 미국외교행정의 진로: 미국외교정책기구심사위원회보고서	박재규 외 공역 1976
3. 비교공산주의정치론	역홍철 편역 1977
- 3. 의료공단무의공사는 4. 전환기의 동남아세아: 지역정치 및 국제관계	박재규 편 1977
	Kyu Park et al., eds. 1977 도나아디어여고시 더 1002
6. 인도네시아	동남아지역연구실 저 1983
7. 동남아정치론	강태훈 외 공저 1983
8. 중공의 개혁정치: 구조·과정·정책	중·소 연구실 편 1985
9. 현대 일본의 정치	한배호 외 공저 1986
10. 현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안택원 편저 1986

11.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12. Koreans in North America: New Perspective 13.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14.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15. 소련 16.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17.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18. 독립국가연합(CIS)의 이해	김국진 외 공저 1987 Seong Hyong Lee et al., eds. 1988 정광하 저 1989 Tae-Hwan Kwak et al., eds. 1991 이은순 외 공편 1991 한석태 외 공저 1991 연구소 편 1996 이영형 저 1999
제3세계연구 시리즈	
1.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2. State-Building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3.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4.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5.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6.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염홍철 외 공저 1987 Su-Hoon Lee 1988 이수훈 외 공저 1989 이수훈 외 공저 1989 이수훈 외 공저 1991 김세균 외 공저 1992
번역 시리즈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개정판) 농민혁명 동원에서 혁명으로 제국의 신화 	페리 앤더슨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4 제프리 페이지 저 / 강문구 외 공역 1995 찰스 틸리 저 / 양길현 외 공역 1995 잭 스나이더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6
자료집 시리즈	
1.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선 2. 지방미군정 자료집 3. 김일성 연구자료집 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5.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연구현황 자료집 I 6.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7.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문서 번역과 과제 -	1991 1993 2001 2004 2006 조진구 2020 조진구 2021
한반도포커스 시리즈	
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2.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 비전통안보 해부 3.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박영준 외 공저 2023 김상규 외 공저 2023 전재성 외 공저 2023

4. 중국의 영역별 리스크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5.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루신지 외 공저 2023 이영훈 외 공저 2023
	102 1012020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 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조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함 사건'사과'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헌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성윤(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워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무수(북하대학원대학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기자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 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4 (2019. 8)

제 목: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5 (2019. 11)

제 목: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발표자: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6 (2020. 6)

제 목: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발표자: 권태준(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이정철(숭실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7 (2020. 11)

제 목: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발표자: 이왕휘(아주대 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인제대 교수)

최순미(아주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8 (2021. 1)

제 목: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발표자: 정영철(서강대 교수)

사카이 다카시(前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자: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장)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한동대 교수)

안경모(국방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숭실대 교수) 김영희(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홍열(한양대 교수)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찬우(일본 테이쿄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9 (2022. 1)

제 목: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안경모(국방대 교수)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0 (2022. 6)

제 목: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발표자: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이웅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워 신안보연구센터장)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1 (2023. 1)

제 목: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애(길림대 교수)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웅현(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난(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2 (2023. 12)

제 목: 2023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

발표자: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정영철(서강대 교수)

토론자: 마상윤(가톨릭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박노벽(전 주러시아 대사)

이 철(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3 (2024. 1)

제 목: 2023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발표자: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자: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형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회원가입 안내

■ 회 비

● 1년 회비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재 가 입: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평생회비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납부방법: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우체국 온라인: 014233-05-000905 (예금주: 경남대학교)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우)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박현정 전화: 02-3700-0725, 팩스: 02-3700-0722

E-mail: pedia@kyungnam.ac.kr

Homepage: http://ifes.kyungnam.ac.kr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신청서**

분 류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개인평생회원 □ 기관평생회원
성명(기관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자택주소	휴대폰 :
	E-mail:
직장(학교) 주소 및 직위	□□□□□ 직위: 전화:() -
우편물발송	□ 직장(학교) □ 자택
학력사항	대학교 과 🗆 석사 🗆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 대학교 과 🗆 석사 🗆 박사학위 (연도)
전공 및 관심 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경력	
가입권유인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인)



